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65 1981년11월9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November 9,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헌법개정에 관한 연방 주수상 회의에서 트루도 수상 (왼쪽)이 알란메케켄 재무상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오른쪽의 레벡 퀘벡수상은 기분이 좋지않은 표정.

헌법개정진통 일단락

연방및 주정부 극적합의, 퀘벡 반대

(오타와)트루도 연방수상과 9개주 수상은 5일 헌법개정에 관해 극적으로 합의, 캐나다는 건국 114년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헌법을 갖게 됐다.

불어사용주로서 독립을 원하던 퀘벡주는개정안에 끝내 반대, 영어사용주들로부터 고립됐다.

레벡 퀘벡주수상은 "앞으로 퀘벡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고 경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대조적으로트루도 수상과 9개주 수상은"오늘은 캐나다에게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축했다.

헌법 개정에 관한 새 방안은 5일하오 연방의회에 상정 됐으나 야당인 보수당(PC)의 조·클락 당수는 퀘벡의 반대를 고려, 지지의사를 보류했다.

헌법 개정에 관해 트루도 수상을 지지해온 신민당(NDP)의 브로드벤트당수는 대체적으로 타협안을 환영했으나 당내 일부에서는 인디안등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 삭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다.

새 헌법안을 심의, 결의해야하는 영국 의회는 캐나다의회 결의에 따라 쉽게 헌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개정에 관한 합의는 연방주정부 수상회의제 4일만에 이뤄져,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협상의 결렬, 대법원 제소등 일련의 찬성, 반대투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캐나다 10개주중 온타리오와 뉴브룬스윅을 제외한 8개주는 트루도 수상의헌법개정안이 주정부 권한을 축소 시키며 타당치 못한 기본권 보장조항을 포함했다고 반대했었다.

이번 합의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한 기본권조항은 처음 트루도의 방안과는 달리 많이 수정됐다.

각주의회는 기본권의 일부 효력을 중단시키는 입법을 할수 었다는 조항이 헌법안에 명문화 됐다. 단 이같은 입법은 5년마다의회에서 재검토를 받는다.

이에대해 트루도 수상은 "그래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기본권조항을 헌법에 갖는 것이다" 라고 자위했다.

모든 주수상들은 종래의 주장에서 한발씩 양보했으나 가장 양보를 많이해서 주수상들과 타결을이루게한 사람은 트루도이다.

각주는 주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미래의 헌법개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

국민들은 자녀를 교육할때 영어 또는 불어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다. 퀘벡주는 퀘벡주민들은 모두 불어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이 조항에 적극 반대했다.

캐나다는 54년전 영국의회가 제정한 캐나다의 헌법인 영국북미법(BNA Act) 대신 자체적으로 만든 헌법을 가지려 했었다. 영국북미법은 영국의회가 식민지인 캐나다를 위해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헌법을 새로 만들거나 제정하려면 영국북미법 제정자인 영국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트루도 수상은 67년이후 자체적인 헌법제정을 추진했다.

이민관 1명 증원

서울주재 캐 대사관

(오타와)연방외무성은 한국주재 캐나다 대사관 근무 이민관 1명을 내년도에 증원, 서울 주재원을 3명으로 늘인다.

세계 각지역주재 이민관 증원 계획에 따른 이같은 증원계획은 밀려있는 이민및 방문자의 비자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대사관의 경우, 10월중 이민신청자가 이민관과 인터뷰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2월이다.

複數부총리制 검토

올림픽 對備한 외교·안보強化策 일환으로

정부는 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외교및 국가안보정책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복수 부총리제를 검토중인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복수 부총리제는 2,3명의 부총리를 두는것으로 현재 개회중인 국회에 곧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식통은 정부가 구상중인 복수 부총리제 가운데는 직책의 성격에 따라 존속기간이 한정된 부총리직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정계에서 추방된 일부 구정치인들이 정치활동 규제에서 풀려났을때 새로운 임무를 맡을수 있도록 하는「순회대사직」을 실시키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될 복수 부총리직은 올림픽담당, 외교·안보담당을 포함한 2,3개 직으로 신임부총리에는 노태우 제2정무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지목돼 있다.

또 정치활동 규제자 명단에 들어있는 박종규전대한체육회장과 김택수국제올림픽위원등이 순회대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화 $1당 710원

한국, 환율인상 계획

〈서울본사전화〉정부는 연초 중단하였던 환율유동화정책을 재개하여 연말까지는 1달러당 7백10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2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연초이래 물가안정을 이유로 포기되었던 유동화정책이 최근 신용장 내도악화와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환율을 인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社說 해야할 일들

—한인연합회에 촉구한다—

캐나다 전국 한인계를대표하는 단체로 한인연합회가 있다.

창립 수년간 연합회가 치른 거창한 일은 전국 한글교육자대회였고, 비중 큰 결정사항은「한인의 날」제정이었다.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전국 각지에서 모국어 전달의 최전선에 나선 일선교사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한글교육자대회는 차원 높고 비중 큰 행사였다. 이는 초대회장 유태호씨 시대의 연합회 유일한 업적으로 꼽힌다.

그밖에도 연합회는 각지역 한인회장간의 '유대' 연락기관 기능을 근근히 지속해 왔으나 이렇다할 두드러진 자국을 남기지 않아 연합회를 아끼는 이들을 안타깝게 해주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한인연합회는 10월 3일 개천절을 캐나다의「한인의 날」로 제정, 해마다 이날 전국에 걸쳐 민속, 문화행사를 벌이기로 결정을 보았다. 캐나다연방정부 짐·프레밍복합문화성장관은 이날을 한인의 날로 (코리안·헤리티지·데이)로 선포했고, 이를 결정하는 것등을 위해서 소집된 연합회총회 경비로 약 7천달러를 지원했다.

잘한 일이고, 장한 처사였다.

그런데, 동연합회는 지난 10월 3일 제 1회「한인의 날」행사를 시일이 없고 준비 미비등 이유로 불발탄으로 만들었으며, 다수 각 지구 한인회 단위의 지역행사로 치르도록 연락하는데서 그쳤다.

연합회가 자진해서 정해놓고, 첫해부터 실시 안하는 태도는 정상적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가지고서 어찌 전국을 대표하는 정상기관의 체모와 위신이 서겠는가?"하는 반문이 생긴다.

연합회는 내년부터는 될 수 있는한「한인의 날」행사를 걸르지 말아야할 것이며 내년도의「한인의 날」행사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회장소 물색과 교섭, 캐나다당국및 한국대사관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발송, 세부적인 대회행사 계획짜기등 그 엄청난 업무량을 단시일에 치르려고 미루지 말고 "유비무환"이라 미리 미리 야무진 사전준비를 짜야 대사는 탈없이 치러질 것이다.

그밖에 연합회가 해야할 일뜰은 너무도 수두룩하다. 교포에 관한 각종통계 작성, 공통된 교민의 애로사항 집계및 캐나다정부에의 진정, 건의, 또한 주재대사관을 통한 모국 정부의 지원요청, 이곳에의 이민증대 노력, 2세들의 진학과 직업진출 방향제시도 연합회가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인력이 소용될 것이기에 무척 어려운 일들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러한 벅차면서도 알찬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에 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연합회가 한시바삐 생기있게 움직여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금주의 행사▷

(11월9일~15일)

◇11월13일(금)하오1시 백커협회 정기총회
곳 : 프린스호텔(900 York Mills Rd)
연락처 : 755-3632

◇11월14일(토)상오10시~하오5시 한인장로교회 바자
곳 : 한인장로교회 친교실(1183 Davenport Rd)
연락처 : 535-6864

◇11월14일(토)상오10시~하오5시 토론토순복음교회바자
곳 : 토론토순복음교회 친교실(1 King St, Weston)
연락처 : 881-7162

◇11월14일(토)하오5시 Y합창단원 모집및 심사
곳 : 한인 YMCA(15 Robian Ave) (St. Clair와 Oakwood동북쪽1블럭)

◇11월15일(일) 상오11시30분 동부한인장로교 헌당예배 및 장로장립식
곳 : 동부한인장로교회(251 Christie St)
연락처 : 530-1142~3

社告

이전파티에의 초대

저희 〈한국일보-토론토〉사는 지난 5월1일 사옥을 이전했읍니다만 아직 교민 여러분을 새 사옥에 모시는 기회를 마련치 못했읍니다.

이에 따라 본사는 해가 바뀌기 전에, 또 세모(歲暮)의 어수선함이 다가오기 전에 평소 좋은 말씀 주시고, 물심양면 도움주신 필자, 독자, 광고주, 선후배 제현을 잠시 모시는 기회를 마련키로 했읍니다.

분망하신 가운데라도 일차 찾아주시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때 : 1981년11월14일(토) 하오2시~하오7시
곳 : 본사 1025 DUPONT ST. TORONTO (도버코트·로드 서쪽)
전화 : 533-2361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드리지 못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일보 —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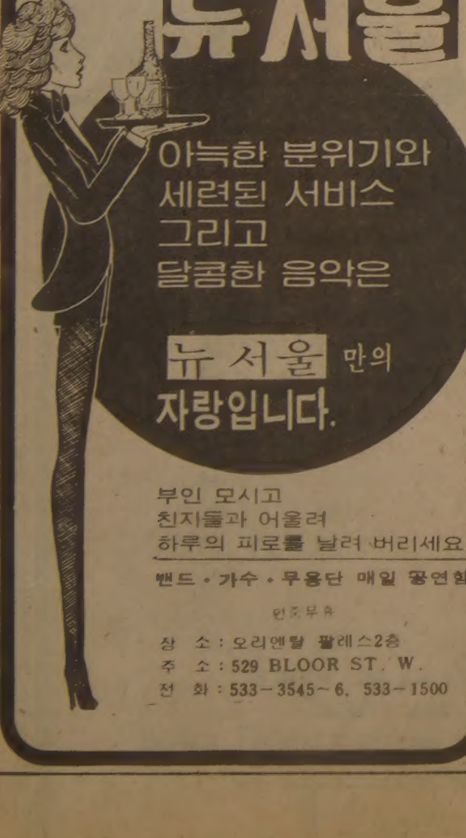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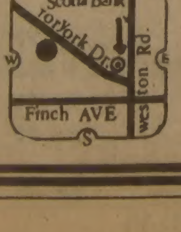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534-7791
635 BLOOR ST. W. (한국관 앞)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WANIN TAEKWON-DO
THE LEADING STYLE IN THE ART AND SCIENCE OF TAEKWON-DO
완인태권도
完仁跆拳道
무도진수와 지도권위로
1. 고상한 인격도야와 신체단련을 시킨다
2. 강한 개성의 확립과 신념의 인간을 만든다
3. 위기를 무난으로 피하는 자기능력을 키워준다
4. 문제아 선도및 학업능률을 향상시킨다
※한국인 자녀를 특별할인우대·한국인사범 직접지도
KYONG LEE TAEKWON-DO CENTRE
H.Q.: 615 YONGE ST., at Isabella, Toronto (416) 929 5511
NORTH: 2281 YONGE ST., at Eglinton, Toronto (416) 483 4002
EAST: 1865 LAWRENCE AVE. E. at Pharmacy, Scar (416) 759 2500
OVER ALL CALL: (416) 962 3000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留學生들 울음바다

어머니처럼 우리 뒷바라지 해주시던분들이…

事故地點은 내리막길 커브 「스톱사인 있는줄 몰랐다」

코발리스市의 集團交通慘事 死亡者 한명늘어 모두5명

오레곤 코발리스 99번 하이웨이 이상의 집단교통사고 참사의 비보가 전해진 4일, 코발리스인근의 2백여 한인들을 비롯 포틀랜드지역 교포들모두 충격과 함께 슬픔에 잠겨있다.

더구나 사고를 당한 일행 모두가 한인 교수와 의사들의 부인들 이었기때문에 현지 유학생들은 큰충격을 받고있다.

유학생 위문行事 논의하고 돌아오는 길에 事故
희생된 教授夫人들 평소 컴뮤니티봉사에 적극

오레곤주립대학 스테빈스교수의 부인 박명옥씨도 첫도미 유학길에 올른 서푸른 학교수숙등 진학상담에 애를먹는 한인 유학생들을 항상 도왔었다.

우리가 평소「유학생들의 어머니」로 부르던 분들이 집단교통참사를 당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입을모았다.

사망자중 박명옥씨는 지난 4월에 열린 살렘시가 주최한 오렌주여성마라톤대회에도 출전 1등을 하기도한 활발한 성격이었다고 주위에서는 전하고있다.

이번 희생자들 모두가 소도시 코발리스의 2백여명이 채못되는 한인사회에서 유학생회 환영회를 비롯 한국음식을 도맡아 제공하기도 해 컴뮤니티활동에 주축을 이루었었다.

이태근 코발리스한인교회 목사도「가장 모범적인 주부들이 매죽음을 당하다니 믿고싶지않은 사실이다. 한인사회는 어이없는 사고로 큰 손실을 받았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사고지점은「평소 한적한 커브로된 내리막길로 돼있어 부근지리에 어두웠던 운전자가 달려오는 차량을 쉽게 분간키 어려운 곳」이라고 말하고「또 일단 정지 사인도 약간 나무에 가려 잘눈에 뵈지않는곳」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당시 중상을 입고 코발리스시 사마리탄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있던 김정수(42세)씨도 3일 하오 병원에서 숨을 거두어 사망자는 현재5명으로 늘어났으며 오용주(35세)씨도 사고당시 두부에 입은 상처로 소생이 희박한것으로 병원측은 내다보고있다.

「사고일행중 현재 가벼운편인 안문자씨는 4일 병상에서「점심을 먹고 떠난지 약3분정도됐을때 갑자기 꽝하는 소리와함께 몸이 공중을 뜨는듯하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고「사고직전 모두들 오는 추수감사절에 유학생파티를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한 말을 나누고 있었다」고 사고당시를 회상했으며 동승한 일행들의 안부를 안타깝게 묻기도했다고 위문객들은 전했다.

사고당시 인근에 있던 한 목격자는 당시 밴트럭내부에서 앞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모두 그자리에서 절명하고 생존자는 충격에의해 열린 뒷문을 통해 튕겨져 나왔다고하며 절명한 4명은 시체를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참상이었다고 했다.

이 사고소식에 코발리스시에서 80여마일거리의 많은 포틀랜드시의 한인들과 유진시 교포들은 5일 하오1시 코발리스한인교회에서 거행될 합동장례식에 참석할것으로 알려졌다.

코발리스시에서 현재 박사코스를 밟고있는 유학생 윤승창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숨진 김정수씨는 의사 김원규씨 (산부인과)의 부인으로 이곳 50여쌍의 유학생부부들에게 무척이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 죽은 미쎄스 김은 때로 유학생들의 해산비는물론 교포들의 뒷바라지 까지 도맡아해온 따뜻한 분이었다」고 전했다.

현장 희생자중의 한사람인

볼링대회 송년파티

한인볼링협회(회장 정용필)는 12월12일(토)낮12시30분 플레이타임·보울(33 Samor Rd)에서 본사후원으로 제1회 코리언컵 볼링대회를 연다.

경기종목은 개인전(남, 녀), 부부전(혼합식), 단체전(3인1조)의 3종류이며, 참가비는 부부$7, 단체$20, 개인$7이다.

시상은 챔피언에 애뉴얼트로피및 부상등 다양하며, 특히 흑백TV도 주어진다.

한편 이 대회의 시상식을 겸한 동협회의 성탄·송년잔치는 12월19일(토) 저녁7시30분 알비온 커뮤니티·센터(1485 Albion Rd)에서에서 있다. (회비는 개인$20, 부부$30)

이 파티의 경품으로는 벽시계, 카·스테레오등 생활필수품, 식료품등이 마련되어 있다. 댄스파티를 겸한 이날의 여흥프로를 위해서는 4인조 밴드가 출연한다.

골프장비쇼 참가

한인골프협회장 정정홍씨가 대표로있는 J.C.골프·앤터프라이즈 회사는 지난 19일부터 스카보로홀리데이·인에서 열린 온타리오 프로 골퍼 상품전시회에서 고급 골프클럽등을 전시, 많은 주문을 받는등 큰 성과를 올렸다.

정씨는 보웃(Beauwood) 골프클럽의 캐나다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다.

49개회사가 참가한 이 전시회에는 약2백명의 프로골퍼들이 참관했다.

미국서 사채발행 금성TV

(서울5일=합)한국 금성전자는 미국에 칼라TV공장 설립을 앞두고 금융가에 550만달러 상당의 사채를 발행한다.

금성전자는 사채발행계약이 4일 유신구 금성사장과 뉴욕 시티뱅크 대표 사이에 체결 되었다고 5일발표했다. 시티뱅크는 금성사채의 지불보증을 한 은행이다.

럭키그룹의 방계 회사인 금성전자는 최근 미국 앨러바마주 헌츠빌에 금성아메리칸회사라는 명칭의 자회사를 신설, 년 13만대의 칼라TV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 계획중이다.

잠꾸러기 깨우는法

오스트리아의 프란츠·베르페르는 베를린에서 동료시인인 하젠크레파와같은 하숙에 들어있었다。그런데 베르페르는 워낙 심한 잠꾸러기여서 하숙집 마담은 그를 조반먹으라고 깨우는데 애를먹었다。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한 끝에 가장효과있는 잠꾸러기 깨우는 법을 창안(創案)해냈다。

『베르페르씨、하젠크레파씨는 벌써 일어나서 시를 세편이나 썼단말예요!』 잠꾸러기긴 했지만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베르페르는 동료가 시를 세편이나 썼다는 바람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얘기의 샘—

벡커협회 정기총회 현회장단 공로지대

토론토의 벡커 프랜차이스협회(회장 김병진)는 새 회장단 선출을 겸한 정기총회를 오는 13일(금)하오1시 프린스호텔(900 York Mil s Rd)에서 연다. 회비 $15(식사대)

현회장 임원진은 임기중인 지난2년간 본사에 대한 회원권익 화보를 위해 수고와 공로가 컸었다. 계약갱신때의 지나친 본사측권리금 요구의 예방, 영업시간 연장계획저지, 과중한간섭등을 시정시키는데 진력 실효를 거두었다.

또한 데이비스 온타리오주 수상 초청 만찬회 개최로 한인업계의 이미지 선양에도 이바지 한바있다.

〈스포츠 단상〉

훗볼과 북미생활

우리에게도 이제 풋볼(Foot ball)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는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몇명이나 나오는지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다.

타원형의 찌그러진 공으로 하는경기 라는데서 럭비와도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방식, 규칙, 인원등은 전혀 다르다.

이곳 북미인들에게는 최고의 인기경기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경기수는 적으나 각스탠드가 거의 매경기마다 만원이다.

매월 1월중순에 열리는 NFL (National Football League)의 결승전인 슈퍼볼 경기는 표가 이미 시즌초인 9월에 매진되고, 경기가 열리는 도시에는 500달러가 넘는 암표라도 사려는 미국 각지의 훗볼광들이 몰려든다.

미국훗볼리그인 NFL 얘기는 뒤로 미루고, 예선전이 끝난 CFL(캐나디언 훗볼리그)리그부터 알아보자.

CFL에는 토론토·아고넛트가 꼴찌인 4위로 밀려난 동부조에서는 해밀톤·타이캣 1위(11승1무1패) 오타와가 2위(5승13패) 몬트리얼 3위로 프레이 오프(Play-off)에 진출했다. 서부조 꼴찌는 5위 캘가리(6승10패)로 동부조 2위보다 나은 성적이나 프레이오프에는 못나간다.

CFL프레이오프 진출팀과 경기일정은 아래와 같다.

준결승(11월8일) 결승(15일)
동부조) 오타와(5승11패) : 몬트리얼(3승13패)— 해밀톤(11승1무4패)
서부조) 위니펙(11승5패) : B.C(10승6패)— 에드몬턴(14승1무1패)
CFL결승(크레이 컵) 동부대 서부 11월 22일 몬트리얼

위의 결승리그 진출팀에서 보듯이 한팀은 일주에 한번씩 한시즌동안 총16번 싸운다.

이것은 NFL도 마찬가지이다. NFL로 방향을 돌리기전, 훗볼의 경기방식을 간단히 설명한다.

한팀에 11명씩 100야드의 운동장에서 경기를 벌인다. 공격팀은 4번 공격, 10야드를 전진해야 공격권을 계속 잡을 수 있다.

물론 캐나다와미국의 경기방식은 약간 다르다. 그리고 한팀의 인원 11명도 실제에서는 4배이상 늘어난다. 보통 한팀 레귤러멤버 공격수 11명, 수비 11명, 킥커 1명, 펀터 1명, 적어도 24명을 보유하고, 후보선수들을 합하면 약 50~60명이 한 경기에 출전한다.

자세한 경기규칙은 다음으로 미루고, 매일 매일 열전을 더해가는 NFL의 경기를 쫓아보자. 캐나다의 CFL에서는 금년도 작년과 같이 에드몬톤대 해밀톤의 결승이 예상되나 NFL쪽은 다르다.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강했던 팀이 계속 강성 이나 작년도 슈퍼볼 우승팀오클랜드를 비롯, 뉴잉글랜드, LA, 휴스톤등 작년도의 강자들이 고전중이며, 중위권팀이었던 마이애미, 신시내티, 샌프란시스코, 캔사스시티등이 각조 1위로 등장했다.

역시 우리의 관심을 가장 가까운 이웃도시 버팔로로 돌려보자.

지난주 일요일 버팔로에서 벌어진 클리브랜드와의 게임에서 버팔로·빌스는 22:13으로 승리, 6승 3패로 마이애미를 반게임차로 바짝 뒤쫓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버팔로의 프로 2년생인 죠·크립스는 그의 특기인 런닝백보다와 이드리시버로 세번의 타치·다운을 기록, 버팔로의 모든 점수를 혼자 독차지했다. 그러나 버팔로의 점수의 공훈은 훗볼의 꽃인 쿼터백 죠·훠가슨의교묘한 패스에서 이루어졌다. 버팔로측의 리시버들이 크리브랜드의 2중3중 수비에 막혀있을때 예기치 않았던 런닝백 죠 크립스를 이용, 57야드, 60야드, 15야드 패스를 성공시켰다.

월요일 전통의 강팀 달라스·카우 보이와의 경기가 달라스에서 거행된다. 카우보이팀에서 주목할 선수는 역시 쿼터백 대니·화이트, 펀터를 겸하고 있는 대니·화이트는 버팔로의훠거슨에 비길만한 선수이다.

미국의 3대TV CBS, NBC, ABC는 NFL을 나누어 중계한다.

거의 모든 게임은 일요일에 펼쳐진다. 아메리칸조의 팀들 경기는 NBC에서 하고, 내쇼날조의 경기는 CBS가 중계한다. ABC는 월요일 골든아워 저녁 시간 그 주일 가장 주목할만한 경기를 월요일로 옮겨 중계한다.

ABC 스포츠중계팀의 주목할만한 인사는 하워드·카시. 방송기자 출신의 하워드는 중계 자체보다 선수들의 뒷얘기나 경기의 뒷소식으로 말을 이끌어간다. 그의 특기대로 "What a sports caster!"

(유승민 기자)

"아이스크림 먹겠다구? 안돼 살저!"

◇"앉아! 넌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라첼·질맨(왼쪽) 꼬마가 아이크림을 먹고 싶어하는 제이슨(오른쪽)을 약올리고 있다. 제이슨은 27¼파운드가 나가, 위험할 정도로 살이 쪘다.

4일간 연합부흥회 성도, 오순절교회

토론토 성도교회, 오순절교회 여전도회는 오는 12~15일 매일하오7시 남정숙박사를 강사로 초청, 연합부흥회를 실시한다. 장소는 오순절교회당(754 Indian Rd)

새벽기도회는 토요일 상오6시, 자녀교육 생활강좌는 상오 10시에 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⑧⑨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이 할미우트의 남자들에 대한 이런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들에게도 범죄는 물론 있다. 지구상의 어느 민족도 이 범주내에서 다를바가 없다. 또한 이사람들을 통솔하는 어떤 힘도 있고 이들을 다스리는 어떤 직접적인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힘은 법 질서를 지킬수 있다. 이 힘을 이해하면 이할미우트가 어째서 백인사회의 법이 필요 없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사람을 통제하는 권력 조직이 전혀 없다. 단체도 없고 경찰도없다. 확고한 법령이라는 것이 없기때문에 그들은 무정부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사이좋게 산다. 그 비결은인간의 인내력의 한도내에서 협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공포감을 조장시켜 복종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맹목적인 복종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세워논 규범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현명한 복종인것이다.

때때로 혹자는 성문화 되어 있지 않는 법의 경계선을 일부러 넘어갈려고 한다. 예를 들어 자기가 잡은 사슴고기를 불쌍한 옆집과나누어 먹으려고 하지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굶고있는 사람이 고기를 가진 사람을 죽여버리고고기를 뺏지 않겠느냐고? 천만에.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등을 돌린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분노나 노여움을 절대로 나타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것은 바렌에서 살아가는데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몇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으뜸가는것은 노여움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분노를 자닌 사람을 살인자나 미치광이로간주한다. 노여움은 법을 깨뜨리게 하며, 사회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할미우트는 분노를 야만적이며 미숙하여 비 인간적인 성격으로 간주해왔다. 단지 어린애들의 경우는예외이다. 화를 내는 사람은 주위사람들에게서 무서운 수모를 당한다.

그러므로 법을 어긴사람이라도 절대로 분노에 의해서 벌을 받지는 않는다. 이웃에게 고기 주기를 거절했던 사람이라도 그 이웃으로 부터 잘 대접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벌을주는 방법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계속해서 법을 어기면 그는 점점 사회로 부터 소외당한다.

바렌의 황무지에서 이것보다 더 심한 형벌이 있을수 없다. 이땅에서는 생존을 위해 서로 밀접하게 일하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개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야단에 곧 자기 잘못을 깨닫는다. 그러면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고 그는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

그 법은 죄는 죄로 다스려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큰 범죄가 이런식으로 다루어진다. 작은 범죄는 아주 심한 조롱으로 즐기면서 다루어 지는데 이들은 이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

어떤 사람이 사냥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그의 가족이 다른 사냥꾼에 의해서 먹여 살려지고 있으면 그는 북을 치고 춤추고 노래하는 노래제목이 되어 폭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사람이 제정신을 차리고 자기의의무를 행하면 그런 비꼬는 노래가 곧 없어 지고, 그 사건의 모든 기억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같이 사라져 버린다. 한편 어떤 사람이 불구이기 때문에일을 못하거나 하는일이 모두 서투를때는 예외가된다. 이할미우트는 육체적 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있는 사람들을 인내와 이해로써 대해준다. 예를 들어 머리가 명석하지 못한 오네콰우는 내가 그를 알고 있었던 기간동안 단 한마리의 사슴도 잡지 못했다. 그는 전력을 다했지만 그의 식구들은 다른사람들이 먹여 살렸다. 그러나 누구도 오네콰우가 여러사람의 폐가 된다고 비난하는것을 못보았다.

모든 사람은 오네콰우가 훌륭한 사냥꾼이 되려고노력하는 것을 놀리기도 했지만 듣기 좋게 했고, 오네콰우 자신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데서 위안을 찾으려 하는 것 같았다. 바렌에서의 육체적인 벌은 죽음이지만사형은 우리사회의 그것과다르다. 그것은 사회적 제재 혹은 다른 잠재적인 위범자들을 경고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어떤사람이 미쳐서(이사람들의 관념에 따르면 미친 사람만이 사람을 죽임) 주위사람을 죽이거나 해칠려고 했을때 그때는 사형선고가 내려진다. 거기에는 재판도 없고 판결의 공인도 없다. 아마도 셋이나 네사람, 대개는 살인자와 가장 가까운 친척 혹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만나서 전체 사회가 봉착한 문제를 토의한다. (계속)

서 울 식 품

교민을 위한 김장철 최대의 써비스! 최고의 저렴한 가격!

—물건이 매진 될때까지 세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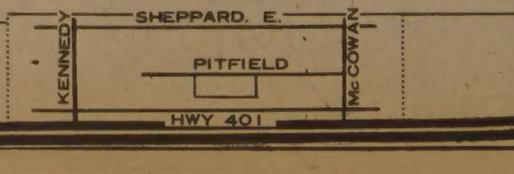
	REG.	SPEC
●불고기등심 최상급 Lb.(10파운드제한)	2.69	2.20
〃 중 급 Lb.(10파운드제한)	2.49	1.96
●갈 비 Lb.(BOX제한없음)	1.69	1.29
냉동갈비 Lb.	1.49	1.05
●소 꼬 리 Lb.	1.35	.95
●참기름 깡통(일본제품) A품	10.90	9.50
〃 B품	10.50	7.40
●명 간 장 1gal.		6.90
●양 잠 피 1kg	2.25	1.80
●삼양라면 1박스(50개)당 15봉지 FREE(곧도착예정)		
●삼양냉면 1박스 5인용(1박스제한)	24.00	19.00
●청수냉면 1박스 2인용(1박스제한)	24.00	19.00
●오징어젖 Lb.(특별가격)		.80
●김(새로입하)	19.99	13.95

★햅쌀입하 ★햅쌀입하

	REG.	SPEC.
●멸 치 젖 Lb.	2.99	1.99
●어리굴젖 Lb.	4.90	2.90
●한국고추가루 Lb.	3.95	2.90
●각종선물용 상품(gift) —20% 할인		
●마늘·생강(특별가격)		1.45
●참살고추장	2.50	1.99
●된 장	1.50	.99
●달걀(1다즌, Large)		1.25
가게하시는 분은 1다즌당 1.23에 드림		
●물 미 역	1.39	.99
●무, 배추(1박스 구입시) 김장용 갈치젖($2.90) FREE		
●무, 배추(2박스 구입시) 닭표간장($2.95) FREE		
●무, 배추(3박스 구입시) 한국산 굴($8.00상당 2파운드) FREE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그는 幸運兒였다"

판문점통해 自由찾은 체코 오르자그 一等兵

▲오르자그 체코일등병이 자유의 길로 택한 판문점. 판문점에는 4개국 중립국 감시위원단으로 남쪽에 스위스, 스웨덴, 북쪽에 체코와 폴랜드군이 각각 주둔하고 있다.

지난10월30일 아침 한국휴전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체코위원단 소속 리처드·오르자그(RICHARD ORSZAGH)일등병은 불과 5백여미터 남짓한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음으로써 공산세계의 생활을 한순간에 청산했다.

서울발 UPI통신은 갖가지 소식통을 인용 오르자그일등병의 탈출 당시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지난2년간 아무도 몰래 자유로 향한 뜻을 품고 있던 오르자그는 이날 「D데이 D아워」시기인것으로 판단, 깊은 숨을 몰아쉬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자신을 눈여겨 보는 눈길이 없었다.

이어 그는 눈앞에 크게 확대되어온 UN군 초소로 사력을 다해 달려 미군경비소에 들이닥쳤다.

느닷없이 뛰어든 이중립국감시위원단 체코병사에 대해 미군측은 그가 영어를 말하지 못했으나 즉각 자유를 찾아 미국에 망명할 의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시 이병사를 심문한 주한UN군의 한소식통은 「그는 아주 행운아였으며 자유를 찾은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1953년 한국전이 끝난 후 휴전협정에 의해 남북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설치되고 판문점에는 휴전을 감시키 위해 4개국 중립국에서 감시단을 파견하고 있다.

2년前부터 남몰래 탈출기회 엿봐
美軍초소까지 5백미터를 단숨에
성공후 제一聲"나는 자유로와지고 싶다"

판문점 남쪽편에는 스위스와 스웨덴이 있고 북쪽편에는 체코와 폴랜드군이 각각 맡고 있었다.

그러나 북쪽은 항상 서로를 감시하는 눈초리가 24시간 뻗어있어 남쪽으로의 탈출은 죽음을 걸지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오르자그가 자유를 찾으려는 마음은 2년전인 18세때부터.

독실한 카톨릭신자인 그는 고향에서 바티칸방송과 「유럽자유의 소리」「보이스·오브·아메리카」방송프로를 통해 자유에로의 열망을 품었다.

군에 징집된후 그는 탈출의 기회를 잡기 위해 상관에게 신임을 받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모범사병으로 판문점 중립국체코감시위원단 7명 장교를 위한 취사병으로 발탁됐을때 「자유로 향한 탈출」의 마음을 굳혔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10월 마지막 주간계획에서 장비재고조사시달을 받고 30일에 실시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이날 아침 8시 재고조사를 실시했으며 45분쯤 작업을 했을때 주위에서 자신에게 관심두는 사람이 없음을 깨달았다.

남쪽땅을 밟은 그의 첫마디는 『나는 자유로와 지고 싶다』였다.〈서울-UPI〉

〈단 편〉 모래성 ③

박 성 민 (문협회원)

기영이 우리라고 부르는 이들의 나이나 사회적 배경은 각자가 달랐지만 모두 땀에 절은 방위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모두 한가지였다. 그래 더욱 친근감을 느꼈는지도 몰랐다. 심지어는 그들을 고달프게 만들었던, 하여 늘 뒤에서 욕을 하던 구대장까지도 기영이 훈련을 끝마쳤을 땐 미워할 수가 없었다.

훈련 마지막날, 그들은 돈을 모아 조그만 싸구려 라이터를 선물했는데, 그는 처음엔 강력히 거절을 했으나, 훈련이 다 끝나고 주는 물건은 뇌물이 아니라!고 우기는 그들 때문에 그것을 받아쥐곤 눈물을 흘렸다. 그는 빈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벌이 콧등에 앉아도 차렷 자세를 흐트려 버리지 않을 전형적인 군인이었는데도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 변두리의 중대본부에 배치된 후로는 모든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다. 첫째로, 기영은 신고식을 강요하던 고참들을 좋아할 수 없었다. 그들은 기영과 다름없이 계급장이 붙어있지 않는 방위복을 입고 있었지만, 녀석들은 권위를 세운다고 사소한 일을 트집잡아서 신고빠따를 때렸다. 공연히 첫날부터 맞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술까지 살 것을 강요했다.

특히 기영은 대대 연락병이라는 채이병을 싫어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는 기영보다 고작 이주전에 배치받았다. 그런 처지에 그는 군기가 빠졌다고 설쳐댔다. 더군다나 그들 4명의 신참중에는 서른이 넘었다는 애기아버지가 한분 계셨는데, 벌써 외모에서 보이는 나이차에도불구하고 녀석은 대뜸 반말을 해댔다.

더우기 중대장이란 작자까지도 제멋대로였다. 그는 아침 늦게 나와서 소위 그가 부르는 "사장"이란 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농담이나 하는게 고작이었다. 그렇고 그런 동네여서 사장이래야 구멍가게 주인이거나 버스종점 부근에서 다방이나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곤 뭐가 바쁜지 이내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그게 그가 하는 일의 전부였다. 제반 사무처리 사항은 방위병들에게 일체를 떠맡겨 버렸다. 간혹 퇴근때가 되어서 돌아올 때도 있었다. 그럴 땐 어디서 대낮부터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벌개져서 돌아오곤 했다. 그것이 훈련 불참자를 참가자로 바꾸어 주곤 돈 몇푼이나 공술을 얻어 먹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까지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에겐 그런 일이 조금도 어색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같았다. 그는 그가 가진 조그만 권력을 행세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방위병들이 근무도중 그의 담배 사오라는 심부름을 해야 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계속)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 사 광고국
533-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美有線TV에 섹스物 판친다

時事性과 토론곁들여 은폐
저속해도 포장만은 그럴듯
成人用 딱지…빠질구멍 만들어

최근 미국에서는 케이·블텔리비전(유선TV)의 시청률이 점차 증가하면서 섹스를 주제로한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섹스지향성은 지난5월31일 로스앤젤스에서 폐막된 「유선TV전국총회」의 최대이슈로 부각되었다.

섹스프로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회사는 「펜트하우스」. 새 성인용프로그램의 방송계획과 기존도색 프로그램의 강화방안을 발표, 관심을 집중시켰다. 「펜트하우스」는 「귀염둥이들」(PETS)이란 새프로그램을 준비하는중인데 회사의 고위간부들이 『이 작품은 섹스일변도가 아니라 시사성 있는 화제와 토론을 포함하고 있다』며 선전겸 변명을 하고 있으나 별로 신빙성이 없는것처럼 보인다.

「펜트하우스」가 보다 역점을 두기로 결심한 프로그램은「탈선행위」(ESCAPADE) 지금까지 주당 5일 방송하던것을 6월부터 공휴일없이 스트레이트로내보내고있다. 「유선TV 전국총회」기간중 「탈선행위」는 관계자들의 요청이 있을때만 특별히 상영되었는데 프로그램의 서두에 『이프로는 「성인용」의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노력한다』는 자막이 화면전체에 깔렸다.

유선TV의 섹스지향성은 갈수록 고조되는 것같다. 알몸이 더욱 빈번하게 화면을 장식하고 보다 노골적인 대사가 튀어나오며 덤으로 폭력도 곁들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유명한 모델들도 속속 섹스프로그램에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이버리비누회사의 모델 마릴린·채임버가 대표적케이스. 마릴린·채임버가 주연을 맡고 있는 「프라이비트·스크리닝스」는 풍부한 성의 향연을 모토로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품위를 강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유선TV전국총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대부분 보다 적극적인 성인용프로그램이 구매자(시청자)들에게 환영받고 있다는것을 감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투어 섹스프로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인시청자들에게 영합한다고 해서 모든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청교도정신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미국에서 섹스일변도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다가는 「도덕적으로 튼튼하게 무장되어 있는 집단」들로부터 맹공격을 받게된다. 따라서 비록 그 내용이 저속해도 포장만은 점잖게 해야한다는 철칙이 적용되고 있다.

「전미유선TV협회」는 회원사들의 섹스지향성에 관해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협회는 총회를 열기전 회원사들에게 『분별있고 책임질수 있는 작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총회기간중 전시된 작품은 기준치를 넘어선 것이 많았다.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펜트하우스」가 마련한 코너에서 도색필름을 구경한후 몇발자국 떨어진 곳에서는 종교단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진풍경을 보였다.

와이오밍주의 체이엔에서 올라온 관계자 로키·C·케이스씨는 『펜트하우스의 작품이 개인적으로 나의 호기심을 끌고 있으나 절대 사고싶은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주요 유선TV회사의 관리인들은 특히 대도시에서 치열한 시청률경쟁싸움을 벌이고있기 때문에 섹스프로의 강화방안을 늘 염두에 두고 있으나 저속한 프로그램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킬까 두려워 마구 벗어제치는 스타일은 삼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워너·어멕스사는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서 칸막이식 야외유선TV시청 방법으로 고객들의 환영을 받은 바 있다.

YOUNG'S JEWELLERY

한국의 코스모스 보석상에서 6년간 보석상을 경영하다 지난80년부터 이곳 토론토에 보석 비즈네스를 Open하고(Whole Sale) 보석전문가로써 활약하고 있읍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최고품질의 보석을 구입 할 수 있음을 보장하오며, 많은 stock도 구비하고있으니, 구경 하십시요.

*오래된 보석을 사고 팝니다.
*HOME PARTY 전화주문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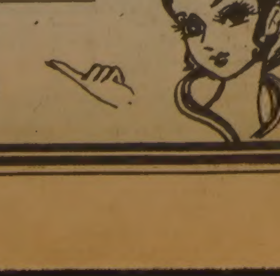
저희보석 공장에서는…
보석주문
보석수리 일체
보석감정
보석 뉴 디자인
오래된 보석을 새 보석으로 개조해 드립니다.

올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은 여성에게 가장 기쁘고 값진 선물인 다이아몬드, 금팔찌, 금목걸이, 화장품으로 해 보세요.

여성의 미(美)

동양인에게 알맞는 고급화장품(Artistry)으로 교민에게 봉사코자 합니다.
매력적인 화장품과 테크닉으로 개성있는 여성의 美를 가꾸어 보십시요.

* 신부화장도 예쁘게 해 드립니다.
* 무료스킨 테스트와 무료배달.
* 기미, 여드름으로 고심하시는 분, 언제든지 개인상담 환영합니다.



주 소 : 790 MILITARY TRAIL, UNIT #9 SCAR. ONT.
전 화 : B) 284-9325, R) 281-1954
MRS. 남

제1회
코리언 컵 볼링대회

금번 한인볼링협회는 제1회 코리언 컵 볼링대회를 아래와 같이 가지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일시 : 1981년12월12일(토)오후12 : 30
장소 : PLAYTIME BOWL LTD(33 SAMOR RD
종목 : 부부전(혼합식) 참가비 $7—
단체전(3인1조) 참가비 $20—
개인전(남, 녀) 참가비 $7—
시상 : 개인전—챔피언(애뉴얼트로피)
남 1, 2, 3, 4, 5등, 여 1, 2, 3등
핸디캡—남, 녀 1, 2, 3 등
부부전—챔피언(애뉴얼트로피)1, 2, 3등
단체전—우승, 준우승
하이싱글및 장려상—남, 녀 1명
부상 : 개인전 챔피언—제니스 흑백TV (아카데미TV사 김정운 제공)
여자 1등—무료파—마권(헬렌미용실 이승자 제공)
부부전 챔피언—범랑 김치통셋 (미도파백화점 장추신제공)
핸디캡 남1등—쿡보쌀(한국식품 서부서춘원)
핸디캡 녀1등—장미쌀(한국식품서부)
*본시상은 12월19일 송년잔치 장소에서 있겠읍니다.
전화 : 759—8228(Mr, 장), 622—0224(Mr, 오)

크리스마스및 송년잔치

한인볼링협회는 회원및 교민의 크리스마스겸 송년잔치를 아래와 같이 가집니다.

일시 : 1981년12월19일(토)저녁7시30분~새벽1시
장소 : ALBION 커뮤니티 센터(1485 ALBION RD & KIPLING AVE,)
회비 : 커플 $30— 싱글 $20—(식사, 주류, 드링크 포함)
회원권판매 : PLAYTIME볼링장에서 매주 일요일 하오6~9시, 한국식품서부
파티 프로그램
● 시상식(제1회 코리언컵 볼링대회)
● 행운경품 추첨
벽시계(영리무역 이영헌 제공)
카 스테레오(HI-FI HOUSE 박명호)
액자(H&S PICTUR FRAME조성호제공)
라면 1상자(한국식품서부지점 서춘원)
샘표간장(한국식품서부지점 서춘원)
● 노래와 경음악(4인조밴드 출연)
● 댄스파티
전화 : 759—8228(Mr, 장), 622—0224(Mr, 오)

주최·재카나다 한인볼링협회 후원·한국일보사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풀리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6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스토어 헬퍼 급구
능력있는분 풀타임 우대함
☎ : 924－5155 Mr. 박

주말에 근무할 분으로(토, 일)
그로서리 캐쉬어 구함.
☎ : 531－3491

입주해서 애기봐 주실분 구함
☎ : 533－9061 , 241－4384 Mrs. 임

접시닦기 구함
☎ : 960－9035

"급 구"
① 윤전기및 인쇄용카메라 기술자
② 윤전기및 인쇄카메라 기술 배우실분
☎ : 533－2361. 미세스 김

스포츠 웨어 공장에서 일할 경험있는 재봉사 모집(약간의 영어 요)
☎ : 746－0054 (FINCH & WESTON)

가게헬퍼 파－타임 구함 (오후5～11시까지)
QUEEN ST. E
☎ : 466－3995 Mr. LEE

성실한 분으로 도너스 샵 매내저를 구함.
스카보로 지역
☎ : 282－0634

영어에 능통한자로 1년6개월이상
MEDICAL SECRETARY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
연락처 : 493－4468

집봐주실 할머니 원함(침식제공)
할아버지 한분만 지키고 계심.
☎ : 669－5084 Mrs. 최

입주하여 애기 봐주실분 구함 : 볼링톤(볼링톤지역 출퇴근가능)
☎ : 665－2866(토론토), 639－2736(볼링톤)

유경험자 여자 캐쉬어 구함
OAKWOOD & DAVENPORT
☎ B) 656 3020. R) 960 0761

맥스밀크에서 일할 캐쉬어 구함
☎ : 244－5248

맥스 밀크에서 주말에 일할 경험있는
성실한 캐쉬어 구함.
☎ : 633－5231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시간당 $4 이상
다림질 하실분 홈워커(고급양장), 고소득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362－2300

입주하셔서 애기 돌봐 주실분 구함.
☎ 535 4441 MRS. 김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R ST. W.

경험있는 여자캐쉬어 구함(풀타임, 파트타임)
261 SCARLETT RD.
☎ : 767－0762

경험있는 FULL TIME 남자헬퍼 구함.
☎ : 597－1115

"봉재사 급구"
●환경조건 좋음, 새기계만 사용, 다운타운에 위치.
●일감보장(경험있는분 수입보장)
●이미많은 한국인이 일하고 있음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X LTD
☎ : 446－1346(Mrs. 아버)

주중오후(4～11시)에 파타임으로 일할 여자분
구합니다. (도너스 가게)
스카보로. ☎ : 284－9325 (Mrs. 남)

매매및 양도

밀크스토어를 찾으십니까?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
스탁은 은행에서 모게지 조정가능
현재는 CHAIN 스토어임
지역 : 오사와, 버링톤, 해밀톤, 피터보로, CEAFORTH, WALKERTON, KING CITY.
☎ : 624－5817 (Mrs. 차)

성업중인 레스트랑 매매 : FAST-FOOD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2층 2 베드룸 있음.
☎ : 255－6424 MRS. 김

이윤 좋은 가게 팝니다
(+집)
☎ : 465－4385

밀튼에있는 버라이어티스토어 세일
좋은 수입과 위치
건강상 이유로 저렴한 가격에 팔고자함.
☎ : 878－5432(Mr. 프레스)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479 WEST MOUNT AVE.
☎ : 653－4633 (Mrs. 코메스)

T. V. 스테레오 최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매매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동양식 레스토랑을 하기위한 좋은기회
L. C. B. O. 라이센스 있음. $300.000이상. 번영하는
MUSKOKA에 있음. 그외 여러 좋은 장소에도 있음.
CLARENCE LABOSSIERE
☎ : 705－326－7468

크로스웨이 꽃집(선물)팝니다
가격 : 17,000달러. 영업시간 짧고
일요일 휴업
☎ : 535－1355

가정형편상 작은 스토아 매매
2층에 살림집 RENT :
☎ 656 7753

여자혼자 운영할수 있는
쉽고 이윤이 좋은 세탁소 급매 합니다.
2687 EGLINTON AVE. WEST.
(직접내방요망) 미세스 강

사무실 투자 : 롱 리스
액설런트 TERMS
☎ : 675－3744. 249－5442

그로서리와 미트스토아
약 $1000.000. 두 아파트를 포함해서 잘설비되 있음.
최적의 위치 HENRY ZWIERS에게 연락
☎ 705－326－4131
WALTER DEAN REAL ESTATE LTD.
107 MISSISSAGA ST. E. ORILLIA. ONT.
☎ : 705－325－6193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HIGH PROFIT.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PREMIUM LOCATION.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ASK. MR전, MR. 진 ☎ : 745－5555

(1)빌딩(2층벽돌빌딩)
벽난로2개, 차고4개, 많은차가 주차할 수 있음. 파킹LOT
아스킹 : $210,000 제1모게지 : 62,000(10과2분의1%)
(2)벽돌 방갈로 하우스
5년(12%모게지)
벽돌난로, 3베드룸, 큰리빙룸, 다이닝룸, WORK SHOP
CALL DOVIS BURDA
☎ : 763－5555, 255－3038(CHOLKAN 복덕방)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530－0748 DAVID

TUCK SHOP 매매(아파트밑에 있음)
☎ : 244－0966(아침9～12시, 저녁6～10시사이)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KNOB HILL FARM(러빌 팜)안에 있는 가게
세놓읍니다.
☎ : 278－3975 270－7072(6시이후)

매 매
PRIME WEST HILL에 위치한 성업중인 비지니스
야마하 모터싸이클, 스노우 모빌 세일과 서비스
직원이 항상 있음 가격 : $100,000
문의는 꼭 영어로 ☎ : 284－4751(JOAN MANUEL
A. E. LEPAPE ONT. LTD. REALTOR

스토아 급매
주 3천불 매상
☎ : 278－5944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서고날에서 내리면 됨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집·방세·하숙

방세놓음 (독신자 원함)
$180 PAPE서브웨이에서3분거리.
☎ : 466－3764, 282－0236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길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악 기 점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평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3963 MR. 오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양 장 점

샐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풍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쉐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가나안 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기 타

SOMÉ JEWELLERY 소메쎄라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225－4641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illegible]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다이야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Young'S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B) 284-9325 R) 281-1954 Mrs. 남

구 혼

구 혼
본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
초, 재혼을 불문코 성실한분을 찾고자 합니다.
재능을 갖추고 있음(특히 가게하실분)
☎ : 469－152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8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변 의 섭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한국 歌謠 百年史

歌謠따라 歲月따라 (2)

特輯

尹心悳의「死의讚美」서 趙容弼의「미워…」까지

「해방된 역마차에 태극기를 날리며…」실로 오랜만에 맞은 해방의 기쁨과 정부수립의 환희가 채 사라지기도 전인 1950년6월25일, 이땅에는 또 한차례 전쟁의 풍운이 휩쓸고 지나갔다。그 비통하고 처참했던 6·25의 참상을 가요인들은 작품으로 옮겨 民族受難史의 기록으로 남겼다。3년간에 걸친 전쟁이 끝나자 이땅에는 다시 건설의 망치소리가 드높아지면서 맘보·탱고·차차차 붐이 고조됐고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갖가지 가요가 판을 쳤다。또 혼탁했던 사회、부조리했던 政街를 은근히 꼬집고 개탄하는 노래도 나와 널리 애창되기도 했다。이처럼 가요의 흐름은 時代의 변천과 일치했던 것이다。

◇日本에 볼모로 가있던 英親王 李垠公(둘째줄중간, 옆에 李方子여사) 위문공연 당시의 원정공연단。英親王 바로 뒤가 金貞九씨。

「가거라 38선」·「新羅의 달밤」두 레코드 對決

解放후 재즈경음악단 亂立「베사메…」流行

해방을 맞기까지 가요인들은 악극단을 중심으로 국내는 물론 멀리 중국과 일본을 돌며 순회공연을 하고 있었다。

平壤에는 평양 每日新聞社에서 주재한 平海移動歌劇團이、서울에선 城寶樂劇團이、金敎聲이 이끄는 단체는 멀리 北海道탄광에서 위문공연을 했다。

거리거리마다 감격의 퍼레이드가 흐르고 있을때 무대에서는 가수들이 목이 터져라 감격을 노래하고 있었다。「해방된 역마차에 태극기를 날리며 사랑을 싣고 가는 서울거리나 울어라 은방울아 세종로가 여기다、인왕산 바라보니 달빛도 곱네」張世貞이 불렀던「울어라 은방울」(박남포 작사·李鳳龍작곡)은 해방의 기쁨을 그대로 옮은 노래였다。

이어 李寅權이 발표한「돌아오네 돌아오네 고향산천 찾아서、얼마나 외쳤던가 무궁화꽃을…」로 시작되는「귀국선」이 돌아오는 해외동포들을 축하해줬다。

高雲峰이 日帝때 불렀던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의「선창」이 세삼 유행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레코드 판매방법도 대규모적이고 고도로 발달된 PR방식을 곁들였다。

南仁樹가 애절한 음성으로 부른「가거라 38선」(朴是春작곡)은 그런 노래의 代表作이었다。

이 노래가 고려레코드에서 나오자 라이벌 럭키 레코드社에서는 上海에서 돌아온 玄仁에게「신라의 달밤」을 취입시켰다。

新羅의 달밤(朴是春작곡)은 선풍적인 인기를 모아 6·25 직전까지 유행됐다。

럭키는 이어、남태평양으로 징용갔던 우리 젊은이의 향수를 읊은「고향만리」、「럭키서울」、「明洞夜曲」을 연달아 玄仁에게 취입시켜 히트시켰다。

미군이 진주한 뒤에는「유아 마이 선샤인」、「베사메 무쵸」등이 널리 퍼지면서 재즈경음악단도 여기저기 생겨났다。

이 당시 한창 각광받던 경음악단은 孫牧人의 CMC악극단、黃文平·金炯來의 장미악단、金海松의 KPK 악극단、趙春影·李在春의 OMC악극단 이었다。

이처럼 재즈가 主레퍼터리가 되자 가수들 중에서도 스타일을 바꾼 사람이 많은데 신민요를 부르던 朴丹馬、朴惠玉、柳貞姬등이 재즈가수로 전향한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이때에는 玄仁이 주연한 푸른언덕이 제작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해방전 OK레코드 가수들이 총 출연했던「노래朝鮮」에 이어 제작된 해방후 최초의 뮤지컬 영화였다。

後半期

◇히트곡은 한달전 豫約

「新羅의 달밤」「고향만리」의 대히트는 玄仁을 정상의 가수로 부상시켰을뿐아니라 전체 가요계를 중흥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이 무렵 가요팬들이 갈증은 대단했다。당시 레코드 제작형태는 엿장수들이 모아오는 고물 레코드를 재생하는 작업이 고작이었는데 그나마 전기보일러로 찍어내는것이 아니라 숯불에 구워내는 지극히 초보적인 방법을 썼다。따라서 팬들이 히트한 레코드판을 사려면 한달전에 예약을 해야 가능했다。팔고 싶어도 레코드가 없어 못팔던 시대였다。그러나 적은 자본으로 나섰던 크고 작은 레코드 메이커들은 도산하는 일이 속출했다。

南仁樹가 차렸던 亞細亞며 OK、서울등이 그런 케이스에 속했다。

당시 무대에서 각광받던 가수로는 白雪姬、金白姬、沈蓮玉、韓福男、李藝星등이 있었다。

또 서울중앙방송국 주최 신인가수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한 琴絲響、宋旻道도 밝은 미래가 약속됐고 朴載弘이「울고 넘는 박달재」「마음의 사랑」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가요계가 성시를 이룰 무렵이었던 1950년6월25일 새벽、지축을 뒤흔든 포성과 함께 개시된 북괴군의 남침은 전 민족이 당한 수난이었지만 가요인들에게도 숱한 비극을 안겨주었다。

이때 미처 한강을 건너지 못했던 가수 李仁根·李夢女부부、金弘烈、姜南春、李福本등과 작곡가 金海松、金炯來등이 납북되고 말았다。

金海松이 내무서원에게 끌려가자 그의 아내 李蘭影은 얼굴에 검정칠을 하고 마포형무소 담벽을 돌았다。

「新羅의 달밤」歌謠 中興 큰몫

그러나 여름비가 촉촉히 내리던 어느날 밤 金海松은 자기 아내가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 미아리고개를 넘어갔다。

이런 애끊는 장면은 56년 서울 수복후 오아시스레코드社를 통해 李海燕이 히트시킨「斷腸의 미아리고개」에 생생히 그려져 있다。

〈미아리 눈물고개—님이 넘던 이별고개、화약연기 앞을 가려 눈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손 꽁꽁 묶인채로、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맨발로 절며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한많은 미아리 고개—〉

半夜月 작사·李在鎬 작곡인「단장의…」는 金海松—李蘭影의 경우는 물론、수많은 납북인사가정에 뼈아픈 기억을 되살려 주고 있지만 작사자 자신의 사연도 담긴 노래였다。

半夜月은 동란이 끝나 서울로 환도해 집을 찾았다。집에는 미처 서울을 탈출하지 못했던 부인이 영양실조에 걸려 병석에 누워 있었다。그뿐인가。네살짜리 둘째딸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숨져 꽁꽁 언땅에 묻혔다는것이었다。半夜月은 그 끓어오르는 애절한 심정을 이기지 못해 가사로 옮겼다。

이런 가슴아픈 사연은 아는 작곡자와 가수는 마음속에서부터 공감을 일으켜 노래를 지었고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그 결과 이 노래는 발표되면서 듣는이의 심금을 울려 삽시간에 전국을 울음바다로 만들면서 폭발적인 히트기록을 세웠다。

가슴아픈 사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申카나리아는 고구마장사를 하다가 붙들려 납북됐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했고 그밖에 많은 가요인들이 죽음의 문턱을、넘나 들었다。

◇「노란 샤쓰 사나이」를 히트시키던 60년 당시의 韓明淑。

북녘땅에서 한창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계속되던 1951년 겨울 大邱 오리엔탈 레코드社에서는 6·25가 낳은 유명한 전쟁가요를 탄생시켰다。

청순가련형의 沈蓮玉이 부른「아내의 노래」(兪湖작사·孫牧人작곡)가 바로 그 노래였다。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었기에、이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소 가신뒤에 내 갈길도 님의 길이요 바람불고 비오는 어두운 밤길에도、홀로 가는 이 가슴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임을 전선으로 떠나보낸 안타까움과 그래도 무운장구를 비는 아내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낸「아내의 노래」—。

이 노래는 애조를 띤 멜러디에 실려 전선에서나 후방에서 널리 애창되면서 싸우는 전선의 장병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 주었다。대중가요의 가치는 그런 데서도 여실히 증명된것이었다。

다음해인 1952년에는「아내의 노래」와 성격이 비슷한 가요「미사의 노래」(李寅權작사·작곡)가 李寅權의 노래로 발표돼 특히 여성들 사이에 널리 유행했다。

〈당신이 주신 선물 가슴에 안고서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어둠을 걸어가오 저멀리 니콜라이 종소리 처량한데 부엉새 울지 마라 가슴 아프다〉

슬픈 탱고멜러디에 실려 대중의 가슴을 파고 들던 이 노래는 사실은 李寅權 자신이 6·25때 아내를 잃은 슬픔을 그대로 가사에 옮겨 곡을 붙인 작품이라는 데서 듣는이의 가슴을 다시한번 에이게 했다。

6·25가 남긴「斷腸의 미아리고개」

舞臺가수로 白雪姬·金白姬·沈蓮玉

6·25사변 당시에 나온 전쟁가요는 작가의 상상에 의해 꾸며진것도 있지만 이처럼 실화를 담은 작품이 적지않았다는것이 가요 종사자들의 증언이다。

동란 발발후、수많은 피난민들이 남으로 남으로 살 길을 찾아 밀려 내려갔다。

◇戰友의 시체를 넘고넘어

그 아비규환의 피난길에서 병들어 객사한 사람도 부지기수였고 날아오는 포탄에 불귀의 객이 된 사람도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전쟁은 그처럼 처참한것이었다。

피난민들은 釜山에 가장 많이 몰렸다。그중에는 노래할 힘도 무대도 없었던 이름난 가요인들이 국제시장 바닥에서 서성거리거나 40계단 싸늘한 길바닥에서 오열하는 모습도 보였다。

젊은 가수들은 전선으로、다른 연예인들은 정훈국 문예중대에 배속됐다。

전선은 일진일퇴의 숱한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그런 상황속에 9·28 서울 수복이 단행된 직후、전선의 참상을 그대로 묘사한「戰友歌」(兪湖 작사·朴是春작곡)가 玄仁의 음성에 실려 전국을 휩쓸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낙동강아 잘 있거라、우리는 전진 한다 원한 위에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꽃잎처럼 사라져간 전우야 잘자라〉

「화랑담배 연기속에 사라진 전우야…」

전우가는 이토록 애절하고 애상적인 노래였지만 적의와 통분이 뒤범벅된 전선과 후방에서 이 노래의 합창소리는 드높아지기만 했다。

이 노래와 함께 黃琴心의「三多島소식」、申카나리아의「승리 부긴」、玄仁의「굳세어라 금순아」등이 히트 했고 가수겸 작곡가 韓福男이 차린 도미도 레코드社에서는 신인 許民을 내세워「페르샤 王子」를 내보냈다。

〈大邱의 오리엔트 레코드社에서는 주로 朴是春을 중심으로 李寅權의「비사의 노래」、玄仁의「인도의 향불」을 히트시켰다。이 무렵、피난지 釜山항에서는 들려오는 전선소식에 눈물과 웃음이 교차되는 가운데 갖가지 로맨스도 싹텄다。그중 토박이 釜山 아가씨와 외로운 피난청년의 로맨스를 그린 朴載弘의「추억의 40계단」은 지금 들어도 추억이 살아나는 사랑의 戀歌였다。

〈40계단 층층대에 앉아 우는 나그네、울지 말고 속시원히 말좀 하세요 피난살이 처량스레 동정하는 판자집에、경상도 아가씨가 애처로워 묻는구나…〉

◇政街꼬집은「물방아…」

孫露源작사·李在鎬작곡인 이 노래는 당시、그 누구나의 가슴에 맺힌 恨을 옮은 노래였다。

이 노래에 못지않게 실향민의 심금을 울린 노래가 월남가수 韓正茂 자신이 넋두리처럼 부른「꿈에 본 내 고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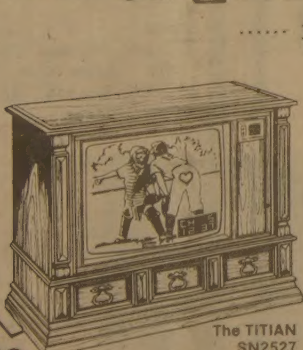
(제7면에 계속)

◇「신라의 달밤」「전우가」등 수많은 히트곡을 낸 玄仁의 전성 시절。호남형인 玄仁에게는 여성팬이 특히 많았다。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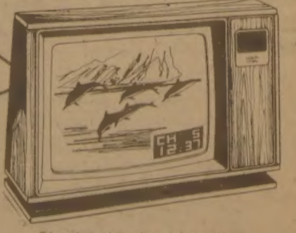
LIMITED TIME ONLY!
Oct. 18 through Dec. 17, 1981
ZENITH
THE GREAT CANADIAN REBATE
UP TO $60 INSTANT REBATE
with the purchase of this
ZENITH SYSTEM 3
26" Remote Control Console

ZENITH T.V. 특별 세일
모든ZENITH 씨스템3 T.V세일
…… 기간 : : 10월18일~12월17일까지 ……
※제니스 Co. 에서 $30~$60까지
CASH REBATE를 받습니다.



$60 INSTANT REBATE
The TITIAN
SN2527
Classic styling. Wood and simulated wood products in Dark Oak finish (SN2527DE) or Pecan finish (SN2527P). Casters.

●REMOTE CONTROL로 조절, 내부에 전화까지 달려 있어 편리.



$30 INSTANT REBATE
The HOLBEIN
SN1961W
Simulated grained American Walnut finish. Black pedestal base. Brushed Aluminum color accents.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FINCH AVE W. WESTON HWY 401 HWY 400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SCARBOROUGH, ONTARIO M1E 3E6
Kingston Rd. Morningside Ave. Lawrence Ave. E.

頂上企業 첫째가 되기까지의 成功秘話

綜合建築資材의 王 韓國스레트

農村에도 近代化의 물결이 일어나 草家는 자취를 감추었다。草家가 슬레이트 또는 기와집으로 탈바꿈 했는가 하면 아예 도시의 주택보다도 화려한 文化住宅들이 들어섰다。

이제는 산간오지를 찾아가도 草家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니 『草家三間 집을 짓고 兩親父母 모셔다가 천년 만년 살고지고』라는 가사는 옛노래가 됐고 오히려 우리나라 가옥의 전통적인 스타일인 草家는 문화재 유물로 보존해야 할 처지다。

62년9월 團成社등 팔아 引收 農漁村 지붕改良덕에 急成長

이처럼 농어촌 주택 근대화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과정에서 슬레이트 생산을 맡고 있는 韓國스레트는 社勢가 불길처럼 일어났다。정부의 농어촌 지붕개량사업 덕택으로 韓國스레트는 財閥로 성장할수 있는 힘을 축적한 것이다。입장을 바꾸어 韓國스레트측에서는 『우리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적극 협조한 주역으로서 이 사업에 크게 기여했다』고 내세울수 있을 것이다。

韓國스레트를 주력기업으로 하여 여러개 사업체를 두고 있는 碧山그룹총수 金仁得은 농어촌지붕개량사업과 각종 공장이 쉴새없이 건설된 60년대와 70년대에 슬레이트를 생산했다는것 자체가 幸運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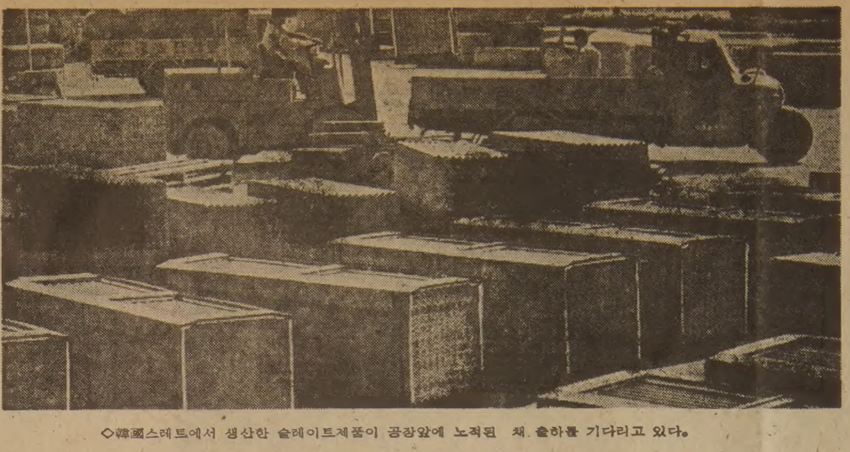
幸運의 主人公 金仁得이 슬레이트 제조업에 손을 댄것은 62년9월이었다。전국에 극장체인을 갖고 劇場王으로 군림하고있던 金仁得은 극장의 명문인 團成社와 半島극장을 처분하여 韓國스레트를 인수했다。金仁得이 이 회사를 인수하게된것은 『産業의 본질은 생산업이고 이 생산업을 통해 産業立志를 펴겠다』는 이념에서 당시 수익성이 양호했던 극장을 처분하고 생산업에 손을 대게된 것이다。

韓國스레트는 1929년 日本淺野시멘트의 京城스레트공장으로 조업을 개시하여 해방후 정부에 귀속됐다가 52년 민간에 불하된 회사였다。金仁得이 인수한 62년 이전의 9개년동안의 판매실적은 3천만원에 불과했었는데 인수후 3개월동안에 6천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이후 매년 2배이상의 신장세를 유지했다。

金仁得은 회사인수 이후 격증하는 수요에 대비하여 시설확장과 병행해서 생산성향상에 정열을 쏟았다。그 결과 62년 인수당시 슬레이트기 1대에 작업인원 25명이 소요됐었던것이 70년에 이르러서는 1대당 8명으로 줄일수 있었으며、생산성 또한 인수당시를 대당 1로 기준할때 70년에는 15로 무려 15배의 놀라운 생산성향상 결과를 가져왔고、이에 겹쳐 농어촌지붕개량사업등으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회사는 급템포로 발전했다。

金仁得은 슬레이트업에 참여한 다음해인 63년10월에는 忠南 廣川에 있는 아스베스토회사를 인수하여 第一스레트로 발족시켰다。그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의·추진으로 대단위공장건설、도로 항만등 건설사업、주택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것으로 예견하고 기왕에 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생산에 나선바엔 슬레이트뿐만 아니라 각종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한편 건설업에도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64년1월에는 회사에 建設사업부를 신설했다。

건설사업부는 착실하게 성장하여 69년에는 우리나라 건설업체 도급순위 15위로 뛰어오르는등 건설업체로서의 실력을 쌓게됨에 따라 72년에는 韓國建業株式會社로 독립시켜 현재 盛業中이다。


◇韓國스레트에서 생산한 슬레이트제품이 공장앞에 노적된 채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後進業體들 自家陶汰되고 市場占有率 60%…단연先頭

슬레이트제품은 石綿을 원료로 쓰고 있으며 이 원료는 넘쳐흐르는 상태다。농어촌지붕개량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슬레이트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슬레트원료인 시멘트를 공급하고있는 雙龍시멘트、東洋시멘트등 시멘트메이커들도 앞을 다투어 슬레이트생산에 나섰으나 모두 생산을 중단하고있으며、현재는 전문업체인 한국스레트와 금강스레트의 2개사만이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판매실적은 韓國60에 金剛40으로 韓國스레트가 단연 앞서고있다。

슬레이트의 王 한국스레트를 주력기업으로 그룹을 형성한 碧山그룹은 80년도의 50대 재벌그룹의 38위를 마크하고 있다。

韓國스레트를 이해하기 위해 碧山그룹의 성장과정과 이그룹中軸의 면모를 살펴본다。

◇李秀春사장

◇金仁得회장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金仁得은 1915년 8월17일、경남咸安에서 출생하여 馬山商高를 졸업하고 34년 馬山內西面 金融組合서기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학업뿐만 아니라 書畵、珠算、運動등에서도 우수하여 多才多能한 재질을 지닌 金仁得은 금융조합(現·農協)에서 10년동안 일해오다가 43년에는 馬山商議업무과장으로 전직했다。

45년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金仁得은 큰뜻을 품고 釜山으로 터전을 옮겨 친구의 요청에 따라 敵產을 관리하는 한편 鐵工所를 운영하게됐다。

이 무렵 金仁得은 공원들과 함께 자취생활을 하면서 사업기반을 잡는데 심혈을 기울이면서 신문보급소 책임자로서 신문판매에도 열을 기울이고 있었다。신문사 총국을 경영하고있던 金仁得은 신문용지구입과 다른 사업도 개척해볼겸 日本으로 건너가 李鉉璹라는 흥행업인을 우연히 만나게된다。

이들은 우연한 만남이 인연이 되어 깊은 의리와 사업상의 협조를 아끼지 않는 사이가 되며 이 인연은 후일 金仁得이 극장왕으로 군림하게 되는 인연으로 꽃피게된다。해방직후 釜山극장、市民館、東亞극장、寶來館등 4개극장을 日本人館主 櫻庭으로부터 사들인 不二電氣사장 李鉉璹는 친척들에게 극장관리를 맡기고 日本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背任으로 극장관리인들이 모조리 구속되고 4개극장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기에 놓여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金仁得은 자신의 적산을 팔아가면서 李鉉璹를 도와주었다。이때 勳誠實하고 儉素한 金仁得의 인간을 높이 평가한 李鉉璹는 金仁得을 동아극장 지배인으로 극장경영책임을 맡겼다。극장운영에서 자신을 얻은 金仁得은 51년 피난수도 釜山에서 映畵수입사업에 착안、東洋映畵株式會社를 설립、무역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 무렵 사업동지 李鉉璹도 귀국하게되어 李鉉璹가 사장、金仁得은 전무로 취임했다。이들 李·金콤비는 의기투합하여 매일밤 11시까지 일하면서 사업은 날로 번창해갔으며 외국영화를 수입하면서 흥행업계를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렀다。그러던중 李사장은 日本으로 떠나고 金仁得이 독자적으로 東洋物產과 東洋映畵를 운영하게됐다。

金仁得이 최초로 수입한 영화는 프랑스 영화인 『情婦마농』。부산 동아극장과 대구 송죽극장에서 개봉된 이 영화는 관람객들이 하도 몰려들어 기마경찰대가 동원되어 질서를 잡아야할 정도였다。

흥행에 크게 성공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이어 계속 수입된 필름들이 모두 흥행에 성공했고 전국의 극장주들은 자기 극장에서 상영하도록 애걸하는 입장으로 발전하여 東洋映畵社는 전국의 극장을 단숨에 손아귀에 넣는 행운을 잡기에 이르렀다。

영화수입에서 성공한 金仁得은 戰亂으로 폐허가 된채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서울 團成社를 인수、증축 수리하여 일류극장으로 만들어놓았으며 여세를 몰아 중앙극장、大田의 중앙극장을 인수했고 단성사 건너편에 반도극장(現 피카디리 극장)을 신축했으며 釜山의 大映극장을 인수하고 釜映극장을 세우는등 극장왕으로 군림했다。

52년5월 단성사를 인수할 당시는 전쟁중이고 서울시민들은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의 극장운영은 어려워 경영난에 허덕이는 당시 사장 金麟漢의 제의로 단성사를 어렵지않게 매입한 金仁得은 전쟁이 끝나면 정상운영이 가능할것으로 보았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환도후 전쟁에 시달린 시민들의 오락이란 극장行 뿐이었고 극장을 찾는 人波는 늘어나기만 했다。56년에는 단성사를 증축하고 우리나라 극장중에는 최초로 냉방시설을 갖추고 좌석 수도 1천1백18석으로 늘렸다。지금까지도 不朽의 名畵로 기억속에 남아 있는 『누구를 위하여 鐘은 울리나』『哀愁』『마음의 燈불』등이 이 당시 수입、단성사에서 인기리에 상영된 작품들이다。

외화만을 개봉했던 단성사에서 『어느 女大生의 告白』이라는 방화를 개봉하여 히트한것은 外道라고나 할까。어쨌든 단성사는 우리나라 영화관가운데 매년 실적 1위를 기록했으며 외국영화의 60%를 동양물산이 수입·배급하고 있었으니 50년대에 金仁得은 흥행사업으로 막대한 財를 축적하여 후일 碧山그룹을 이룩하는 원동력을 마련한 것이다。그는 수입하는 필름마다 히트했을뿐만 아니라 그가 경영하는 영화관은 언제나 人波가 몰려 만원사례라는 팻말이 붙어있었으니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긁어 모았다는 표현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기독교적인 양심과 확고한 清敎徒的인 사명의식을 바탕으로한 경영철학과 개척자적 정신으로 도전하여 시련을 극복하면서 대기업가로서의 꿈을 키워온 金仁得은 흥행사업에 만족하지 않고 主力을 생산업으로 돌려 오늘의 碧山그룹을 탄생시켰다。만약 金仁得이 손쉽게 돈벌수 있는 흥행업에 만족하여 그 분야에 安住했다면 오늘의 碧山그룹은 고사하고 60년대 후반기부터 불어닥친 TV붐과 함께 퇴조된 극장의 不況을 한탄하면서 침몰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앞을 볼줄아는 기업가 金仁得은 62년에 흥행업을 청산하고 산업대열에 참여했으니 그의 현명한 판단은 시의적절한 성장사업만을 골라 성장을 이룩하는 결실을 거두게된 것이다。

金仁得이 興行界의 상징인 團成社를、그것도 성업중에 처분하고 韓國스레트를 인수했을 당시만해도 이 회사는 빚장이에서 빚장이로 회사경영권이 전전하는등 1년에 몇번씩 주인이 바뀌는 부실기업이었다。그러다보니 종업원들도 무사안일상태에 빠져 있는 비능률적인 부실기업이었다。

이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생산업을 하겠다는 의지와、언젠가는 빛을 볼수있는 유망사업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이 회사를 인수한 金仁得은 인수후 1년동안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공장에서 일하면서 태만한 사원은 근면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등 열의로 기업을 운영했다。

모르는 기술을 직접 배우고 익히면서 남들이 8시간 노력하는것을 24시간 주야겸행으로 노력하여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노력했다고 韓國스레트 인수당시의 사장 姜徹求는 회고한다。

기름진 沃土를 버리고 낯설고 황폐한 不毛地를 일구어 沃土를 만드는 苦行의 길을 스스로 택한 金仁得은 슬레이트기와를 최초로 개발했을때 수천년동안 내려온 우리나라 농촌의 초가지붕을 슬레이트기와로 개량하여 농어촌을 근대화하는데 기여하는 한편、슬레이트사업도 발전시켜보자고 주장했다。이때 회사중역들은 소득이 낮은 농어촌을 대상으로한 슬레이트판매사업은 별로 사업성이 없을것으로 내다보았다고 한다。그러나 그의 뜻은 후일 정부의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의 실행으로 的中했던것이니 金仁得은 先見之明이 있는 기업가라 하겠다。

농가에서 대년 초가지붕을 바꾸는데 2만7천원(75년기준)이 든다고 한다。2백50만호가 초가지붕인 한국의 농가를 슬레이트로 바꿈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연간 7백억원의 농가 비용을 절감하게 됐으며、종래 초가지붕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볏짚은 사료、퇴비、고공품、펄프원료등으로 이용됨으로써 농어촌 소득증대에도 기여했다。

韓國스레트株式會社는 농어촌 근대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회사 스스로도 살찌게 됐으니 명분있는 사업을 한것이 자랑인 것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없어서는 안될 사람、남보다 나은 사람、남보다 앞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철저한 마음 가짐은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언제나 나를 곧어 왔고 오늘도 나의 座右銘이 되고 있다』고 金仁得은 말한다。

『남보다 앞서가려면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이 일을 해야한다』는 것을 생활신조로 삼고 실천해오고 있는 金仁得은 이 신조를 사원들에게도 권장한다。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실천을 통해 사원들에게 참모습을 보여준 金仁得은 생산업체에 참여한 이래 68년에는 韓國利器와 韓國輕金屬을 東洋物產에서 흡수、同社에 洋食器사업부와 경금속사업부를 신설했고、67년에는 歐美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極東필터를 설립했으며、또한 이해에 컴퓨터 보급을 위해 韓國유니백을 설립했다。

종합食品등 系列會社 7개설립、그룹形成 生產제품도 建築資材 일변도서 脫皮꾀해

69년부터 73년까지는 기존업체를 質量面에서 꾸준히 확충하면서 기업의 기반을 확고하게 가다듬은 金仁得은 73년부터 75년까지는 가장 많은 사업을 일으키고 碧山그룹의 기초를 마련한 기간이다。73년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후퇴는 전세계를 휩쓸고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不況이 엄습하여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을때 碧山그룹은 『우리업계는 不況이 없다。不況속에 成長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현재 50大財閥중 38位마크 제2의 跳躍위해 全力다해

73년초에는 第一스레트에 페인트공장을 신규로 건설하여 페인트생산에도 나섰으며 72년에 인수한 高麗石綿의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여 同社를 석면과 보온단열재제품 생산공장으로 전환시켰다。

74년에는 전자공업에의 진출을 위해 韓昌電氣를 설립했으며、74년10월에는 정부출자업체인 大韓綜合食品을 인수하자、財界에서는 財力과 또다른 힘이 있는 碧山그룹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기에 이르렀다。

韓國스레트(사장 李秀春)는 지난20년동안 성장과정에서 韓國建業(대표金熙勇)東洋物產(대표金熙喆)大韓綜合食品(대표李鍾燦)碧山金屬(대표金宗培)仁熙產業(대표金仁得)韓昌電氣(대표鄭燦模)韓國建業엔지니어링(대표 金熙勇)등 7개계열회사를 탄생시켰다。

또한 생산제품도 슬레이트일변도에서 벗어나 석고보드、밤나이트、PC보드등 不燃내장재를 비롯하여 天井材인 아스칼텍스 석고텍스와 펜트등 건축용자재를 광범위하게 생산하고있다。

◇韓國스레트를 정점으로 한 碧山그룹은 保溫斷熱材(上및右下)개발에 힘써 大量生產함으로써 우리나라 建材업계에 혁명을 가져왔다。

碧山그룹 주력기업인 韓國스레트의 대표이사로 경영책임을 맡고있는 李秀春은 계수에 밝아 생산판매 재고관리등에 빈틈없는 솜씨를 발휘하고 있다。무진회사와 증권회사를 거쳐 64년 韓國스레트에 입사한 이래 李秀春은 실장→이사→상무등을 역임하면서 碧山그룹 발전에 기여해온 主役이기도 하다。또한 계열회사사장으로 있는 金熙喆、金熙勇은 창업자의 장남과 차남으로 이들은 모두 美國유학까지 마친 알찬 2世경영인이기도하다。

30여년간 사업을 하면서 성실과 신용으로 일관해온 金仁得은 그룹회장으로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을뿐 그의 경영철학과 경륜을 물려받은 사장들을 중심으로 힘찬 전진의 기세를 다지고있다。

韓國上場協議會부회장、韓國貿易協會부회장등을 역임하면서 財界重鎭으로 활약해온 金仁得회장은 韓國基督實業人會 회장으로 종교인으로서도 폭넓은 활동을 하고있다。

슬레이트의 王 韓國스레트는 사장 李秀春、상무 宋在河、世燦 鄭秉吉、이사 許正顯등이 똘똘뭉쳐 80년대 제2의 도약을 위해 가쁜 숨을 쉬고 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토론토 순복음교회 바자초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있는 가을을 맞이하여 본교회에 여전도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바자를 준비했사오니 가족과 친지들을 모시고 오셔서 흐뭇한 시간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품 목 : 의류부, 식품부, 화초부, X-MAS선물용, 악세사리, 성화, 기타.
메 뉴 : 떡국, 우동, 만두, 녹두지짐
복권추첨 : 여러가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음
일 시 : 1981년11월14일(토요일) 오전10시~오후5시
장 소 : 순복음토론토교회 친교실
주 소 : 1 King St. Weston, Ont.
전 화 : 881-7162 821-1326

토론토 순복음교회 여전도회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트로피 & SPORTS—
이 기 훈
298 3584
880 ELLESMERE RD. UNIT 1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도넛샾 :
①주매상 $6,500. 렌트 $3,000. 5년+15년 옵션 가격 : $26만 달러
②주매상 $5,500. 렌트 $2,300. 3년+10년 옵션 가격 : 18만9천
③주매상 $4,500. 렌트 $1,060. 8년+10년 옵션 가격 : 18만5천

주유소및 가게
①1⁄2에이커 땅에 가옥포함. 코너땅에 도넛샾 자리로 최적. $8만 다운. 가격 : 30만달러
②년매상100만달러이상. 2⁄2에이커땅에 가옥포함 년수입 : 8만달러. 8만달러 다운. 가격 : 35만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 :
주매상 : $5,500. 주매상 : $7,000.
주매상 : $8,000 되는 버라이어티스토아. 기타가게 달린집. MALL안에 있는 가게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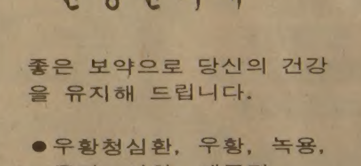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中國良藥 大量供應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燕山主의 魅力 <9>

한국의 恋人들

色情狂態

全完吉 (太平洋 博物館長)

연산왕만큼 많은 여성을 골고루 사랑한 플레이보이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 그의 엽색 행각기를 누군가가 소설화한다면 이보다 농도짙은 육문학(肉文學)이 존재할 것인가. 연산의 엽색 기록을 모두 옮기기는 어렵지만 구비설화를 제외한 역사 기록 몇가지만 간추리더라도 그는 단연 으뜸가는 색광(色狂)이다.

서민가운데 대표적인 색광은 변강쇠지만 연산은 왕이었기 때문에 무한히 성을 향락함으로써 모든 이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연산이 암·수말을 후원에 들여다가 교접시키고 그것을 구경하였다. 1496년 5월에 있었던 일이다. 이는 연산이 왕위에 오른지 2년째, 더우기 상중(喪中)이며 나이 스물 한살 때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을 보면 연산이 어린 시절에 기생과 술, 노래가 범벅인 잔치에 찌든 정을 감안하더라도 선천적으로 호색(好色)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환관(宦官) 김순손(金順孫)이 극구 말리고 숭정원에서도 간하자 『특별히 구경한 것이다. 다시는 않겠다』고 약속하고 자중하였다. 그러다가 7년후인 1503년 6월에 사나이의 욕심을 넘지시 드러낸다.

광한선(廣寒仙)등 장악원 기생을 불러 잔치를 벌인 끝에 술에 취하여 임숭재(任崇載)더러 『광한선을 가까이하고 싶은데 외부에서 알까 두렵다』고 건넸다. 임숭재가 『세조때에도 네 기생이 무시로 궁중에 출입하였읍니다. 기생 출입을 외부에서 어찌 알겠읍니까』고 말하자 용기를 얻어 『광한선을 찌었다. 또 정업원(淨業院)의 아름다운 여중 일여덟명과도 음행(淫行)하였다.

이때는 연산이 왕권(王權)을 다진대로 다졌다고 생각한 무렵이므로 본능껏 색욕을 탐하기 시작하는데 신하들이 이를 방조하여 그는 바야흐로 굶주린 늑대가 날뛰듯 한다.

연산은 기생이나 여종들과의 사랑놀이에서 나아가 당시 여성이면 누구든지 마음에 드는 자를 뽑게 하였다. 그래서 1503년 12월27일에 모든 명부(命婦)가 예궐(詣闕)하도록 명령하고, 명부와 승지의 아내 명단을 제출하라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잠자리 여인을 직접 선발하기 위하여 여자들만 불러 잔치를 벌였다. 잔치에 참가하는 모든 여자는 반드시 분바르고 눈썹 그리고 꽃을 머리에 꽂고 명찰을 달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래도 만족하지 못했던지 연산은 모든 종친의 아내 명단을 작성케하고, 선왕(先王)의 후궁은 물론 정희왕후(貞熹王后·世祖妃), 소혜왕후(昭惠王后·德宗妃), 안순왕후(安順王后·睿宗妃), 자순왕대비(慈順王大妃·成宗妃)및 중궁(中宮)의 동성(同姓) 4촌과 이성(異姓) 3촌까지의 여자 명단을 작성케하는 동시에 이들을 모두 잔치에 참여시켰다. 임금은 나라의 주인이므로 생살권은 물론 여성의 정조도 소유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관례에 의하면 왕이 죽은뒤 후궁들이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됨으로써 절개를 지켰는데 연산은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아 세종·문종·세조의 후궁가운데 여승이 된 후궁을 가려 도로 머리를 기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잔치에 참여케 하여, 그들과도 정사를 가졌다.

이는 강상(綱常)을 무너뜨리는 패덕행위였기에 당시에도 왕을 나무라는 여론이 들끓었는데, 자신이 후궁을 간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혜왕후의 두 동생을 죽이고 그들의 처첩(妻妾)을 여러 왕자들에게 분배하여 난행토록 종용까지 했다. 그 자신은 월산대군(月山大君·成宗의 親兄 즉 큰아버지)의 처인 박씨를 불러들여 간음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백모와 통정한 것인데 박씨는 연산과의 정사로 임신하자 수치심끝에 자살했다고 전한다.

先天的으로 好色…모든이의 想像을 초월하여 性을 享樂
남의 妻妾뺏어다 王子들에 分配…亂行토록 종용하기도

왕의 이러한 호색이 장안에 알려지자 왕과 정사를 가지려는 여인들이 줄이어 나섰다.

예를 들면 좌의정 박숭질(朴崇質)의 아내가 그렇다. 그는 늙었으나 아내 정씨는 젊고 예뻤다. 정씨는 궁중에 들어가서 열흘씩 묵고 나오는 일도 있었지만, 날마다 단장하고 대궐을 향하고 앉아서 탄식하기 일수였다.

또 남천군(南川君)의 아내 최씨는 천성이 음탕한 여자로서 홍준이란 사내와도 간통하였는데 연산을 만나려고 장녹수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자주 궁궐에 들어갔다. 뜻을 이루어 연산과 밤을 즐기고 사위를 등용시켰으며, 금표(禁標)안에 든 집값을 후하게 보상받았다. 이들은 자원하여 임금님과 정사를 가짐으로써 상대가 성의 마술사인 연산인자라 환락의 늪을 헤맸고 재산과 명예를 보장받는데다가 남편의 투기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3득(三得)이었다.

꽃과 나비는 어우르게 마련이므로 누구를 굳이 나무랄 필요가 없겠지만 연산이 이처럼 호색했던데는 그만한 정력이 유지되었기 때문인데 중국 황실에서 태의감(太醫監)을 우대하듯 연산도 궁중에 보양술사(補陽術師)를 두고 우대하였다.

의원 김홍수(金興洙)、고세보(高世輔)、하종해(河宗海)、김공저(金公渚)가 그 장본인들인데 이들은 연산에게 홍원룡(紅圓龍)·흑원룡(黑圓龍)·홍갈호(紅蝎虎)·흑갈호(黑蝎虎)등의 환약을 만들어 바치고 높은 벼슬을 얻었다. 이들 정력제는 개구리·도마뱀따위로 만들었다는데 김홍수는 자헌(資憲)、고세보는 가정(嘉靖)、하종해·김공저는 가선(嘉善)에 봉해졌다. 연산에게 진상된 정력제는 이밖에도 반쯤마른 노루·패자(貝子)·흰 말(白馬)등이 있었다. 연산이 보양술을 전담한 의원들에게 큰 벼슬과 푸짐한 보너스를 내린 것을 보면 보양효과가 컸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처럼 정력제를 상용한 연산은 선상성회(船上性戲)를 창안해내기도 했다. 즉 크고 작은 배를 한강에 모아 배위에 판자를 깔고 못질하여 누각 4간을 지은 뒤 큰 밧줄로 강을 가로 지르고 잡아당겨 왔다 갔다 하면서 황음(荒淫)을 즐겼다.

이 뱃놀이에 동원되는 기생은 특별히 흡려악(洽黎樂)으로 부르고 따로 훈련되었다 (연산의 음란성을 엿보려면 3천명이나 뽑아 훈련시킨 기생、장녹수와의 사랑을 빼놓을 수 없는데 다음주에 다루기로 한다).

속칭 섹스교파문이 있었다. 젊은 여신도 한사람이 입문동기를 『뭇 사람과 혼음해보고 싶어서』라고 말했는데 뭇 사람과 어울리고 싶은 욕망은 모든 사람에게 서려 있다. 다만 윤리·도덕의 굴레를 의식하여 자제할 뿐인데 연산이 과감하게 원시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연산이 동물적인 성충동을 충족시키기 시작한 즉위 9년째엔 아무도 그에게 덫을·들이대지 못했다. 멍에가 풀린 망아지처럼 날뛸 수 밖에 없었다. 만일 정승들이 그의 성욕을 짓누를 수가 있었다면 연산은 모범 가장임에 틀림없고, 세종·성종보다 훌륭한 상감이었을 것이다.

特輯·한국歌謠百年史

(제5면에서 계속)

◇60년대 중반 전성기시절의 팝스타들。왼편부터 崔喜準、朴載蘭、李錦姬、위키 리。

「굳세어라 금순아」「승리부기」등 연달아 히트

<고향이 그리워도 못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고향을 잃은, 수많은 월남 실향민들이 고향이 그리울때면 지금도 하염없이 부르는 노래—이 노래가 전국을 메아리칠 무렵, 후방에서는 각 방송국을 중심으로 가요인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었다.

釜山방송국은 李在鎬가 중심이었고 大邱방송국은 李炳主, 馬山방송국은 半夜月이 중심이 됐다.

이들 가요인들은 전선의 참상, 피난의 설움만을 노래로 발표한것이 아니라 당시 혼란했던 政街를 개탄하고 고발하는 노래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朴載弘이 부른 「물방아 도는 내력」(孫露源작사·李在鎬작곡)이었다.

<벼슬도 싫다마는 명예도 싫어, 정든 땅 언덕위에 초가집 짓고, 낮이면 밖에 나가 길쌈을 매고 밤이면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새들이 우는 속을 알아보련다>

국회의원들을 태운 버스가 기중기에 매달려 끌려가던 정치파동과 땃벌떼, 해골단의 난무속에 歸去來를 노래한 이 노래는 혼탁했던 자유당권을 비웃으면서 예리하게 꼬집은 노래였다.

따라서 이 노래를 부르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심정이어서 동태 한마리를 들고 판자집으로 돌아가던 피난민들도, 불밝힌 창가에서 거리를 내다보던 소녀들도 목이 터져라 불러댔다.

후방의 모습이 그처럼 어지러울 때도 전선의 하루하루는 비극의 연속이었다.

고향과 부모처자를 떠난 젊은 병사들은 언제 어디서 또다시 터질줄 모르는 전쟁의 불안속에서 안타까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때 때맞춰 발표된 申世影의 「戰線夜曲」—.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단잠을 못이루고 돌아눕는 꿈가에,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아—아— 그 목소리 그리워—>

兪湖작사·朴是春작곡의 「전선야곡」은 전선의 병사들뿐아니라 후방의 국민들도 너나없이 애창하던 노래였다.

이 무렵, 악단들은 8군무대를 누볐다. 또 그때를 전후해서 북진열차에 동승했던 악단도 있었다.

OMC 악단은 북진열차에 동승해서 평양까지 갔다가 중공군의 남침에 되쫓겨 C46機를 타고 되돌아왔다.

8군무대가 흥청거리자 유능한 악사를 모두 8군무대에 빼앗겨 일반공연이 부진하기도 했다.

◇終戰後「이별가」난무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고 가요계에도 많은 변화가 계속됐다.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래 크게 유행했던 노래는 柳春山의 「안개낀 木浦港」「향기품은 군사우편」이었고 레코드업계에 새로 유니버설社가 등장하면서 白雪姬가 스타덤에 올라섰다.

은쟁반에 방울을 굴리는듯한 특이한 목소리를 가진 白雪姬는 朴是春 작곡인 「아메리카 차이나타운」「물새 우는 강언덕」「첫사랑의 문」「청포도 사랑」을 연달아 히트시키면서 전성시대를 누렸다.

휴전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北進統一의 소리는 드높았지만 그것은 메아리 없는 절규가 된채 1953년 7월, 휴전회담이 성립됐다.

3년이란 기나긴 세월동안 전화에 시달리며 피난살이를 하던 피난민들은 피난생활의 쓰라림과 추억을 간직한 채 너도 나도 환도열차에 몸을 실었다.

피난올 때 없었던 아기를 둘쳐 업은 아낙네도 있었고 홀로 피난 왔다가 피난지에서 만나 부부가 되어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

피난살이에서는 애달픈 사연도 속출했다. 영도다리에서, 40계단에서 맺은 로맨스 때문에 열차의 난간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다.

바로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그대로 묘사한 노래가 南仁樹의 「이별의 부산정거장」(兪湖작사·朴是春작곡)이었다.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한많은 피난살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못할 판자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의 아가씨가 슬피우네 이별의 부산정거장—>

안타까운 남녀의 이별을 눈에 보이듯 연상시켜 주는 이 애절한 노래는 삽시간에 폭풍처럼 전국에서 선풍을 일으켰고 40년대의 인기가수였던 南仁樹는 50년대에 들어 또 한차례 인기가도를 달렸다.

「이별의…」다음에 南仁樹가 히트한 노래는 「청춘고백」「무너진 사랑탑」「산유화」였다.

지금은 가요계 일선에서 떠나 다른 일을 하고있지만 당시 레코드 가수로 孫仁鎬를 손꼽을수 있다.

孫仁鎬는 朴是春 작곡 「누가 울어」、李在鎬 곡 「울어라 기타줄」등 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가수로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것은 朴椿石의 데뷔곡이기도 했던 「비 내리는 湖南線」을 히트시키고 부터였다.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야 옳으냐,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려야 옳으냐, 사랑이란 이런가요 비 내리는 호남선에, 헤어지던 그 인사가 야속도 하더란다>

孫仁鎬에 이어 등장한 美聲의 가수 明國煥은 「백마야 울지 마라」「아리조나 카우보이」등 수많은 곡을 냈다. 특히 「방랑시인 김삿갓」(金文應작사·全吾承작곡)은 그 노래의 가사처럼 「열두대문 문간마다」 불리워지던 노래였다.

<죽장에 삿갓 쓰고 방랑 삼천리, 흰구름 뜬 고개넘어 가는 객이 누구냐, 열두대문 문간방에 걸식을 하며, 술 한잔에 시 한수로 떠나가는 김삿갓—>

시대 감각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노래였지만 그 옛날 風流를 즐겼던 金삿갓의 생활에 향수를 느꼈음일까, 대중들은 이 노래를 즐겨 불렀다.

◇40년대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주역급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왼쪽 두번째부터 高賢峰、玄仁、金세레나、都美。

終戰되자 「이별의 釜山정거장」등 붐이루고
朴載蘭의 「럭키 모닝」權惠卿의 「산장의 女人」

◇전국 휩쓴 맘보 붐

어수선한 환도의 한철도 가고 가요계는 서울、釜山、大邱등 지방별로 歌謠圈을 형성했다.

釜山엔 코로나 레코드社와 미도파 레코드社를 중심으로 白映湖、金虎吉、朴종식、許英喆등의 작곡가와 玄仁、宋旻道、李淑姬、朴載弘등 가수가 활약했다.

그중 宋旻道는 이색적인 저음가수로서 「나 하나의 사랑」을 불러 인기를 모았고 계속해서 「서울의 지붕밑」「서귀포70리」「아네모네」「카추샤의 노래」를 불렀다.

宋旻道에 이어 朴載蘭이 등장했다. 어린시절부터 무대활동을 하며 인기를 끌어오던 꾀꼬리가수 朴載蘭은 「럭키 모닝」「푸른 날개」「산넘어 남촌」「맹꽁이타령」을 내보냈다.

비슷한 시기에 빛을 본 가수중 세미 클래식한 창법의 權惠卿은 「산장의 여인」「동심초」로 인기를 굳혔고 鄭愛心은 환도 이후 영화계에서 활약하면서 영화 「백치 아다다」의 주제곡을 비롯 「미사의 종」「과거를 묻지 마세요」로 인기 절정에 올랐다.

휴전이후 차츰 사회가 안정돼 가면서 맘보 붐이 일었다. 미스·코리아로 세계미인대회에 나간 아가씨가 「맘보 춤을 춰서 낭썩해졌다」고 했을만큼 맘보 붐은 대단했다.

이 물결을 타고 金貞九의 「코리안 맘보」 韓福男의 「맘보타령」 宋旻道의 「서울의 안나」등이 있었다.

이중 가장 히트한 맘보타령의 가사는 어땠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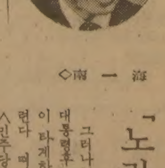
<아리랑 도라지가 헤이 맘보, 스리랑 할미꽃이 헤이 맘보, 빈대떡신사의 동동주、맘보가 들린다 여기도 맘보, 신나게 들린다、뚱뚱보 왕서방、코리안 맘보가 띵호아、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이런 무드 속에 자유부인이 활개를 치면서 춤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가요도 덩달아 댄스 뮤직으로 편곡돼 차차차…불루스가 판을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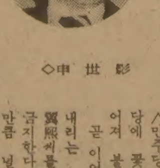
당시까지도 우리나라 방송은 큰 발전을 하지 못하던 상태여서 방송이 가요에 미친 영향은 별로 크지 못했다.

그러다가 중앙방송국에서 한국최초의 연속극 「청실홍실」을 발표하면서 판도는 달라졌다.

「비나리는 호남선」에 이어 「청실홍실」大流行
「노란샤쓰의 사나이」旋風도



◇南一海



◇申世影

「청실홍실」의 주제가는 安多星、宋旻道가 불렀다.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노래도 좋았던 이 노래는 방송전파를 통해 삽시간에 유행의 물결을 탔다.

그후 중앙방송국의 출력이 10kw로 증강되자 방송은 가수들의 활동무대로서 본분을 담당、새로운 가수들을 발굴하면서 새로운 가요를 홍수처럼 만들어냈다.

「고향여」(金好吉작곡)、「고향에 찾아와도」(李在鎬작곡)、「금수 강산에 백화가 만발하구나」(朴是春작곡)、「꽃중의 꽃」(黃文平작곡)、「청춘목장」(宋秉?작곡)등의 건전가요들이 HLKA의 「오늘도 명랑하게」의 마이크를 통해 매일아침 흘러나왔다.

이 무렵 라디오가수로 활약했던 가수로는 琴絲響、元芳鉉、權惠卿、朱利愛、明國煥、金鮮英등이 있었다.

이어 화려하게 등장했던 都美는 「청포도 사랑」「비의 탱고」등을 불러 히트했다.

그는 그후 가수활동에서 떠나 76년 연예협회 이사장직을 맡기도 했다.

한편 「청포도 사랑」과 비슷한 시기에 히트했던 朴載弘의 「有情千里」는 색다른 에피소드를 남겼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메산골 내고향에, 못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어린 보따리에 황혼빛이 젖어드네>

애수에 젖은 한 실향민의 귀향을 노래로 옮긴 半夜月작사·李명희작곡의 작품이었다.

그러나 1960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申翼熙씨가 덧없이 타계하자 「有情千里」의 <가련다 떠나련다…>의 가사는 <민주당에 비가 오네 자유당에 꽃이 피네…>로 바뀌어져 불리기도 했다.

곧 이어 孫仁鎬가 부른 「비 내리는 호남선」이 나오자 申翼熙씨를 애도하는 노래라고 금지한다는 설도 있었지만 그만큼 널리 애창되던 노래였다.

◇추모곡으로 바뀐 「有情千里」

孫露源작사·朴椿石작곡의 「비 내리는 호남선」이 발표된 다음해인 57년봄, 오아시스에서는 孫詩響의 애곡적인 저음에 실려 「검은장갑」(孫夕友작사·작곡)을 출반해냈다.

<헤어지기 섭섭하여 망설이는 나에게, 굿바이 하며 내미는 손, 검은 장갑 낀 손, 할말은 많아도 아무말 못하고 돌아서는 내 모양을 저 달은 웃으리—>

이 곡이 나오기 한달전、KBS와 인연을 맺고있던 孫夕友씨는 어느날、KBS 전속가수들과 차를 마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

『아름다운 얼굴、꽃、풍경뿐만 아니라 추한 돼지의 불품없는 모양도 얼마든지 그림이 될수 있듯이 자가의 눈과 생각에 따라 노래도 소재파악을 폭넓게 해야한다. 따라서 지금 K양이 끼고 있는 검은 장갑도 노래 소재가 될수 있는것이다.』

孫씨는 이 말을 해놓고보니 實證을 보여줘야 할 의무감으로 결국 이 노래를 작곡, 불후의 히트곡을 생산했다.

같은 무렵에 역시 메트로의 저음을 지닌 南一海가 羅花郞씨에게 픽업돼 가요계에 데뷔하면서 「찾아온 山莊」을 발표했다.

<그대 찾아왔네 산장의 여인, 아무도 모르게 찾아서 왔네…>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權惠卿의 「산장의 여인」의 속편처럼 가사내용도 꾸며져 이렇게 이어진다.

<아— 돌부리 가시밭길 헤쳐가며 왔네, 맹세도 새로워라 마음의 사랑, 달콤하던 옛추억, 잊을 길은 없어 잊을 길 온 없어 나홀로 찾아왔네>

이 노래의 히트로 南一海는 오래동안 톱가수의 자리를 지키면서 「빨간구두 아가씨」등 많은 노래를 히트시켰다.

이 당시 여가수로는 玄美、權惠卿、李錦姬、朴載蘭등 여러 사람이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韓明淑은 60년도에 혜성처럼 스타일 「노란샤쓰의 사나이」(孫夕友작사·작곡)를 대히트시키면서 일약 톱가수의 자리에 올랐다.

<노란샤쓰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생김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아—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아—그이도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노란샤쓰 입은…>

당시 美8군 무대에서 玄美와 함께 드나들다가 일반 가요계에서는 첫취입곡이기도 했던 이 곡은 처음 6개월 동안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5·16혁명후부터 공전의 대히트기록을 세웠고 이 노래는 영화화(신영균、엄앵란 주연、한형모 특별출연)되기도 했다.

더욱 특기해야 할것은 이 무렵 한국을 찾아왔던 세계적인 샹송가수 이베트·지로가 이 곡을 우리말로 고쳐 불렀고 그의 자칭으로 레코딩 하여 歐美、東南亞、일대에 「노란샤쓰…」가 널리 보급됐다는 점이다.

◇엘레지의 女王 李美子

「노란샤쓰…」가 선풍을 일으키기 직전인 1959년초, 가요계에는 콧소리를 섞은 노래로 묘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여가수가 등장했다.

◇6세때부터 무대활동을 한 河春花는 특히 극장공연에서 호응을 많이 받았다。

18살로 순박한 티를 벗지 못했던 李美子였다.

李美子는 한국최초의 TV 방송국 HLKZ의 신인가수 선발프로 예능 로터리에서 鄭愛心이 부른 「언제까지나」를 불러 1위를 차지하면서 가요계에 정식 데뷔했다.

데뷔후 李美子는 「열아홉 순정」「행여나 오시려나」「워싱턴 블루스」등을 발표했으나 4년이 지나도록 별로 빛을 보지 못했다.

李美子는 결국 64년1월 연주인 鄭鍾浩씨와 결혼、현재 가수로 활동중인 鄭在恩양을 임신하면서 가수활동에 열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李美子가 톱스타로 부상하게 된것은 64년말 「동백아가씨」(白映湖작곡)를 발표하면서부터. 영화 「동백아가씨」의 개봉과 함께 그 주제가로 선을 보인 이 노래는 단번에 대 히트였다. 전국 어디서나 젓가락 장단이 있는 곳이면 이 노래가 판을 쳤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울때나 슬플때나 흥얼거리던 노래였지만 뒤늦 日本色이 짙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고 말았다.

어쨌든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말기에 이르기까지 李美子는 「님이라 부르리까」「황포돛대」「흑산도 아가씨」「기러기 아빠」등 발표하는 曲마다 히트를 치면서 엘레지의 女王으로 군림했다.

<다음주에 계속>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209〉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 WASN'T BORN YESTERDAY.

I wasn't born yesterday. 그대로 직역하면 「어제 태어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이다. 상대방이 이쪽을 깔보고 이용하려는 기미가 보일때 미국인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에 약간 Dent (찌그러진 부분)가 생겨 Body shop (차체공장) 에 가져 갔는데 터무니없어 $350를 달란다.

이때 바로 이 I wasn't born yesterday.이다.

Pull over란 차를 한쪽으로 세우다의 뜻으로 교통경찰에 걸렸을때 흔히 경찰이 확성기에 대고 위반한 차량에게 이같이 소리지르는 것을 볼수있다。이때는 길 한쪽으로 차를 붙이고 정차하라는 이야기다。

A : I'd like an estimate for repairing this dent.

B : Pull it over there and I'll take a look at it.

(A few minutes later)

There's a lot of work involved. We'll have to charge you around $350.

A : Oh, come on. I wasn't born yesterday. That's a little steep, isn't it?

B : Well, if you think it's too high, you'd better try someone else. I'm positive everyone will give you the same estimate.

A : Thanks for your time, but I think I'll get a few more opinions.

B : Suit yourself, but I'm sure you'll be back.

A : 이 찌그러진 부분을 수리하는데 견적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B : 차를 저쪽으로 세우면 제가 봐드리지요。

(수분후) 일이 참 많군요。350불은 내셔야 되겠읍니다。

A : 아, 이러지 마십시오。나는 이 세상물정에 그렇게 어두운 사람이 아닙니다。그건 가격이 좀 터무니 없는것 같군요。

B : 글쎄요。가격이 터무니 없는것 같이 생각이 드시면 다른곳을 알아보시지요。그러나 견적은 어딜가나 마찬가지 일겁니다。

A : 시간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몇군데 더 알아 보아야 할 것같읍니다。

B : 좋을대로 하십시요만 손님께서는 곡저희에게 돌아 오실겁니다。

※steep : 가파른, 구어체로서 터무니없는 가격이나 요구를 뜻함。

Suit yourself : suit oneself 「마음대로 해라。」 「싫으면 그만둬라」의 뜻。

SOONER OR LATER

sooner or later란 ultimately (결국에), 혹은 At some unknown time in the future. (미래의 언젠가) 의 뜻으로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돌아올 사실」 을 내포하는 말로서 회화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만일 그가 계속해서 지각을 한다면 언젠가는 결국 직장에서 파면될 것이다。」 If he continues to be late, sooner or later he'll lose his job. 「언젠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는 변호사시험에합격할것이다」 He'll pass the bar sooner or later。

교포들이 하는말이있다。「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의 조국에 돌아갈 것이다」 I'm living in America now, but I'll return to my homeland sooner or later. 라고。

A : Jack's late for work again?

B : Yeah, I think so. Is he always late?

A : Yeah. He's been late for five days in a row.

B : Then maybe he'll be in trouble someday.

A : If he continues to be late, sooner or later he'll lose his job.

B : You bet he will.

A : 잭이 또 지각인가요?

B : 네, 그런것같은데요。항상늦나요?

A : 네, 닷새동안은 계속해서 지각입니다。

B :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겠군요。

A : 만약 그사람이 계속해서 늦는다면 결국에는 직장에서 쫓겨날 겁니다。

B : 틀림없이 그렇게 될겁니다。

※pass the bar: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다。Jack's late for work again? :이와같이 서술문인데도 회화체에서는 끝만올려주면 의문문의 역할을 하게된다。

in a row 연달아, holidays in a row:연휴Ex. We have three holidays in a row. 사흘간 연휴가있다。

본 칼람 담당 「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 교육처및 교포들의 영어교육처수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 S. 마나오더에 한합니다.

스물두살의 자서전 ㊽

金洪信 作
崔然石 畫

『여기선 싫어.』

『약속해.』

『손대고 얌전하게 데리고 가면 되잖아. 어서.』

『약속하는 거다.』

『속눈에 소질있는 사람처럼 왜 그래.』

『정말 약속하는 거다.』

『난 첫날 밤을 이런식으로 이런 데서 이러고 싶지 않아.』

『좋아. 그럼 여관으로 가자.』

『여관은 싫어.』

『그럼.』

『이왕 데리고 가려면 호텔로 가.』

『좋아.』

다혜는 겉심이 선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떼고 일어섰다. 다혜가 내 팔짱을 힘주어 꼈다. 내 팔꿈치는 행복에 겨웠다. 얼마만에 소원을 풀게 되는 것인지 모른다.

지난줄거리

미나를 학교 뒷산으로 끌고간 총찬이는 우격다짐으로 미나를 다룬다. 미나는 총찬이 앞에서 옷을 벗다가 따귀를 맞는다. 마지막 키스를 나누고 헤어진 뒤에 미나는 다혜를 만나 사실대로 얘기한다. 다혜는 총찬을 불러내어 서로 용서하기로 결정한다. 총찬은 옥시풀을 사다가 입을 소독하고 다혜와 긴 입맞춤을 한다. 오늘 밤은 꼭 다혜를 훔칠 작정이었다.

이게 모두 하나님에게 기도한 덕분일 것이다.

당신은 영명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공원을 빠져나왔다. 늦은 밤길의 택시는 전속력으로 내달리고 있었다. 나는 택시를 세우고 다혜를 먼저 태웠다.

『잠깐, 찬이 약방에 가서 옥시풀 한병 더 사가지고 와.』

『왜?』

『그럼 안갈 거야.』

『아까 소독했잖아.』

『그 정도 가지곤 안돼, 어서.』

나는 순순히 다혜의 말을 듣기로 했다. 다된 밥에 코를 풀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다혜 마음이 돌아서기 전에 하자는대로 해주고 싶었다.

『잠깐 기다려. 금방 사올께.』

나는 찻길을 무섭게 건너가 약방으로 들어갔다.

『옥시풀 한병 주세요.』

나는 급하게 소리쳤다. 주인이 약병을 꺼내는 순간 나는 다혜가 혼자 타고 있던 택시가 내달리기 시작하는 걸 쳐다 보았다.

『저런….』

나는 약방에서 뛰어나왔다. 차량들의 불빛과 쏜살같이 달리는 다혜가 탄 택시가 정신없이 혼돌리고 있었다.

나는 다혜를 쫓아갈 힘을 잃었다. 뒤따라 택시를 타고 다혜네 집쪽으로 달려가봤자 허사라는 걸 알기때문이었다. 집 앞에 가서 붙잡아 보았자 다혜가 쉽사리 옷을 벗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았다.

나는 옥시풀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아스팔트 바닥에 거품이 일고 있었다.

하나님. 좀 봐주면 벼락이라도 맞습니까? 이건 해도 너무 하잖아요. 다른 사내들에겐 여자 갈아치우는 걸 양말 갈아신는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모르는체 하지 말라구요.

·나도 맘만 먹으면 여자들을 수없이 훔칠 수 있다구요. 사람이 조금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맞장구를 쳐줘야지, 그러는게 아니라구요.

자정이 임박한 시간에 집으로 왔다. 기분 같아서는 퇴계로나 중앙시장 근처의 나체서비스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여가수 보슬비를 불러내고 싶었다.

이 나이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내 용솟음치는 욕망의 불길을 잠재울 게 그리웠다. 가소롭게도 나는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친 옥시풀의 거품을 바라보며 미나를 불러내고도 싶었다. 전화 한마디면 꽤라이라는 날개를 달고 얼마든지 밤새 줄길수 있었다.

하다못해 예날의 정리를 내세우며 변화가로 들어가기만 해도 정말 뜻못한 여자들과 욕정을 불사를 수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질기고 끈적거리는 욕망을 끌고 집으로 왔는지 모른다. 그게 양심의 끄트머리라는 걸까?

난 세상 모든 여자를 갖고 싶다. 도덕과 윤리, 법률과 양심, 인륜의 관습과 사람이라는 것이 없다면 나는 내 주먹솜씨와 내 건장한 육체로 세상 여자를 몽땅 가졌을지도 모른다.

아뭏든 나는 가능한 많은 여자를 갖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래서 더 왕초가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보통 왕초가 아니라 왕초 가운데 최고의 왕초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여자 많이 거느리는 숫자가 남자의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라는 건 역사책을 들추어가며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위대했다는 세종대왕의 여자 거느리는 실력을 볼 필요도 없었다. 놀려있는 사내들을 보면 당장 알 수 있는 일인 걸 뭐.

돈있고 빽있는 사내들이 여자 거느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었다.

전화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다. 수화기를 들지 않아도 다혜의 전화인이란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나야. 왜 전화했어?』

내 퉁명한 소리를 들던 다혜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다른 데로 샜는지 확인하려고 걸었어.』

『너한테 장가갔다가 꽤 삭겠다.』

『찬이 같은 사내한테 시집갔다가는 몸 성하지 못하겠는 걸.』

『너 정말 그렇게 놀 거니?』

『우리 약속했잖아. 결혼하기 전엔 절대 서로를 지켜주기로.』

『어차피 할 거 아냐?』

『다른 여자하고 낚시질(입맞춤)이나 하는 사낼 어떻게 믿어.』

다혜가 이렇게 미나와의 사건을 개입시키고 나섰다.

『그건 옥시풀로 다 닦아냈잖아. 더 말 않기로 약속했잖아.』

『암튼 오늘 일은 잊어버려.』

『정말 독종이다, 너.』

『잘봤어. 한번 더 그렇게 늑대처럼 굴면 물어뜯을 거야. 명심해.』

『너한테 물려 죽었으면 좋겠다.』

『난 양같은 짐승을 물어 뜯는 여자 아냐.』

『내가 졌다.』

나는 웃고 말았다. 그렇게 몸을 지키려는 다혜의 정신이 가상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겼다. 고운 꿈 꾸고 잘 자. 내일 전화할께.』

『꿈속에서라도 널 갖겠다.』

내가 오기 서린 말로 이렇게 대답했다. 다혜가 키킥거리며 웃었다.

『나도 꿈 속에서 물어뜯을거야.』

수화기를 내려놓았지만 쉽사리 잠들것 같지 않았다.

다혜의 젖가슴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붙어있는 것 같았다. 여민 치맛단 속으로 보드라운 허벅지의 감촉이 또, 내 뇌리 속에 남아서 지워지지 않았다. 허벅지는 차가왔다. 차가운 밤바람이라서 노출된 허벅지가 차가왔던것 같았다.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다. 자꾸 다혜를 벅어 누르던 모습만이 떠오르고 있었다.

다혜는 나무보다처럼 뻣뻣했을까. 아냐. 그녀도 인간인 걸. 뜨겁게 달아 올랐을 거야. 그녀도 여자인 걸. 참느라고 이를 악물었을거야. 그 더러운 관습, 여자는 수줍어야 하고 소극적이어야 하고 임신이라는 무서운 방패무기 때문에 이를 악물었을 거야.

이 주먹, 건장한 육체면 세상 여자 몽땅가질수 있겠지 불타는 욕망이 온몸을휩싸 도저히 참을수가 없었고

다음엔 기필코 훔치고야 말 거다.

아무리 내가 편리한 쪽으로 생각해 보아도 잠들수가 없었다. 다혜의 보드라운 것들이 내 몸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다.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끈끈한 욕망은 불타고 있었다.

온주 누나를 생각했다. 내가 달려들면 어떻게 할까?

욕망의 끈을 움켜쥐고 사는 여자니까 그 끈을 풀어줄 것 같았다.

그러나…안돼.

미나, 보슬비, 온주 누나, 다혜…떠오르는 여자의 얼굴은 끝없이 욕망이라는 내 더러운 가슴속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살금살금 기어가 응접실로 나갔다. 컴컴한 응접실 바닥의 카페트 위를 기어갔다. 조금씩 어둠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온주 누나의 방문앞에 멈추어서 귀를 기울여 보았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책꽂이 위에 놓여있는 여성지들을 한아름 안고 다시 살금살금 내 방으로 돌아왔다.

스탠드 불빛에 드러난 여성지 속의 여인들은 아름다웠다. 평소에는 여자들의 방어용 무기만 같던 속옷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반나의 여인들, 속옷만 입고 웃고 있는 그 자신감, 치마를 들고 바람 부는대로 허벅지를 보이는 여인들, 인생상담란에 거침없이 육체의 파멸을 호소하는 여인들.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여성지에 등장한 여인들 모두를 삼키고 싶었다. 단 한명이라도 그냥 두고 싶지 않았다. 가능하면 몽땅 훔치고 싶었다.

어차피 내어놓은 여자들이겠지 머. 숫처녀라면 아무리 돈받고 하는 짓이지만 그렇게 벗은 거나 마찬가지로 나서진 않겠지.

그렇다면 닥치는대로 훔쳐도 그만이겠지 머. 먼저 훔쳐먹은 게 임자인 거야 머. 세상 다 그런 거 아냐.

나는 여성지를 방바닥에 주욱 펴놓고 마음 내키는대로 훔치고 있었다.

나는 팽창했다. 팽창은 뜨거움을 의미했다.

내 숨소리는 높아졌다.

그리고 나는 폭발했다.

여성지 속의 모든 여자들을 한꺼번에 훔친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에 삼천궁녀를 거느렸다는 의자왕이었고 천하의 여자를 호령했다는 연산군이었다. 아니 술집 여자를 호령하는 지배인이기도 했다. 그도 아니면 창녀촌의 뚜장이 왕초이기도 했고 강간전문범이기도 했다.

나는 갑자기 시들해졌다.

모든게 별 것이 아니었다. 부끄러움이 스물스물 내 몸을 감고 올라섰다. 허무했다. 괜히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

설마…

이런 꼴을 촬영해 두었다가 인 다음에 심판 받으러 갔을 때… 설마 그러시진 않겠죠.

책에서 봤읍니다만 정상적인 사내와 계집애들은 그런 거 좋아한답니다. 뭘, 나이 차면 저절로 배우는 거잖아요.

사람 다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뭐 별 거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실수한게 따지만 그 가운데 큰 실수는 바로 이런 거라구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발가벗겨 놓고 자세히 관찰하면 쉽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잖아요.

순간 연산군이 되고 뚜장이 왕초가된 기분 이었고 발가벗고 달려드는 계집애 한텐 꼼짝 할수 없었다

이 초라하지만 황홀한 흥분을 배운 것은 첫번째 가출 때였다. 그때 나이가 정말 싱싱한 혈기를 지닌 10대 후반이었다.

어째서 가출자의 고향이 서울이란 악마구리같은 도시인지 모르겠다. 가출을 결심한 사람은 거의 무작정 서울로 행선지를 삼는 것 같았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도시의 늪에 빠져서 헤매기 시작했다. 사람도 낯설었고 거리와 골목길도 낯설었다. 하다못해 판자촌과 썩어빠진 뒷골목의 쓰레기통마저도 낯설었다.

어머니의 금고는 벽장 속이었다. 그곳은 어머니의 믿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은행이기도 했고 저금통장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은행이나 증권 같은 것을 믿지 않았다. 쌈지 속에 한 주먹이 넘게 챙겨가지고 있는 금부치와 벽장 속의 현금만을 믿었다.

나는 가출하는 날 장도리로 벽장의 자물쇠를 뜯어냈다.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기대를 배반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부자였다. 금부치와 현금이 내 상상력을 무시할, 만큼 많았다.

내 어린 분수에 걸맞지 않게 많은 액수의 돈을 챙겼다. 그리고 나는 정중하고도 솔직한 현금차용증을 쓰기 시작했다.

어머니. 고생은 사서도 하라고 하셨읍니다. 저는 큰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머니의 소망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집을 나서겠읍니다. 그래서 세상공부를 한 뒤에 진짜 효자가 되어 돌아오겠읍니다.

공부하러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꽉 진지 잡수시고 울지 마시고 건강하게 계세요.

돈이 떨어지면 반드시 돌아올테니 걱정마세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대충 그런식으로 편지를 써놓고 나왔다. 그건 내가 어머니에게 쓴 현금보관증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때만 해도 내가 우리집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소유한 현금과 패물은 당연히 내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었다. 미리 내가 일부를 탕진한다고 해서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라고 나 스스로에게 위로하곤 했다.

내가 가출한 뒤에 어머니가 얼마나 방바닥과 어머니 자신의 머리채와 버선짝을 학대했는지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가출한 뒤에 어머니가 나를 서울까지 데리고 간 그 징그러운 기차와 정면충돌로 화풀이를 하지 않은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다.

오죽하면 일가친척들과 아버지의 친구들이 돈을 추렴해서 나를 찾으러 다녔을까.

내가 최초로 매스컴이란 보도매체를 탄 것도 바로 그때였다.

일찍 출세한 셈이었다. 그 나이에 학력부나 시험지, 머리 숨자지나 도화지 정도가 아니면 출세부에나 이름자가 올라있는 정도였겠지만 나는 거창하게도 서울의 방송국과 신문사, 아들을 찾는 광고전단 따위에 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했었다.

어머니의 극성이 어떻다는 걸 더 설명할 재간이 없었다.

면장어른과 군수영감과 경찰서장아저씨가 어머니한테 멱살을 잡히고 담임선생이 어머니를 피해 다니느라고 일주일이 넘게 학교에도 못나왔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나는 감히 우리 어머니가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한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 어머니의 극성이 몸부림 친 돈이었지만 내 서울생활은 쉬사리 호주머니를 훑어가고 있었다.

그런 어느날이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남대문시장 골목에서 막국수 한 그릇 먹고 나오다가 양동 입구에서 내 나이 또래밖에 되지 않은 계집애에게 손목을 잡혔다. 계집애는 가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촌놈답게 사정을 했지만 계집애는 가방을 채뜨려가지고 판자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가방속에 그나마 내 전재산이 들어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따라 들어갔다. 방으로 끌려 들어간 나는 웃목에 쪼그리고 앉아 사정을 했다. 계집애가 옷을 벗으며 피식피식 웃었다.

『병아리 들어왔니? 살살 털 벗기고 먹어라.』

『오줌 뉘고 재워라.』

『어린 신랑 데쳐 먹으려면 꽉꽉 씹어야 한다.』

문 밖에서 다른 계집애들이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있었다. 나는 바지를 움켜잡고 빌었지만 계집애는 놓아주지 않았다.

『처치!』

방바닥으로 가위가 떨어졌다. 밖에서 구경하던 계집애들이 가위를 던져준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에 계집애가 시키는대로 꼼짝못하고 서있다. 말 듣지 않으면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 계집애들 독종이란 소리를 일찍부터 들었기 망정이지….

내가 워낙 숙맥이었기 때문에 계집애가 시키는대로 할수가 없었다. 어려서부터 계집애들께나 쫓아다니며 못살게 굴 허수였지만 발가벗고 달려드는 계집애한테 꼼짝을 할수 없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계집애가 하는대로 가만히 있었다. 거부할 수 없는 환락의 늪에 빠져들었다.

한참만에 나는 가방 속에서 계집애가 갖고 싶은대로 돈을 세어갔는 걸 지켜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도망나왔다.

그때부터 나는 언제고 연정이 식으면 그 계집애를 천당에서 만나더라도 손모가지를 자신 부러뜨리겠다고 벼르곤 했었다. 고마울 때도 없는건 아니었지만.

이튿날 저녁에 나는 다혜를 만났다. 다혜는 엊저녁 사건따위는 잊어버린듯이 내 앞에 신입사원 모집광고지 5장을 내밀고 무조건 손가락을 걸자고 했다.

『찬이 첫월급 받는 날, 입술을 하루 종일 대여해 줄께.』

나는 손가락을 걸면서 어디가 허물어지는 것처럼 웃었다.

〈다음주에 계속〉

부부화목 모범가정, 밝아지는 교포사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政府·기업 同伴관계로發展

全대통령 專門家에만 經濟맡기는 時代지나

"製品質높여 競爭力강화를"
내년지나면 不正부패一掃"

全斗煥 대통령은 4일『과거 우리경제는 정부主導型이었으나 이제는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하며 국민이 협조하는 정부와 기업의 同伴者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중앙청회의실에서 무역진흥月例회의를 주재한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수출증대에 있어서는 품질보장과 信用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창의력을 발휘,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제2의 경제跳躍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일부 경제전문가들에게만 경제를 맡기던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하고『전국민이 경제에 대해 이해할수있는 능력을 갖출수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중앙청厚生館국무위원 식당에서 회의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가운데『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淨化운동은 단시일안에 이룩될수는 없다』고 밝히고『내년이 지나면 사회의부정부패가 일소될것』이라고전망했다.

全대통령은 또『기업인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며 80년대의 우리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 것』이라고 당부하고『정부는 최선을 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지원할것』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오찬에앞서 회의장에 전시된 工藝品, 民藝品등 88서울올림픽대회에 대비한 국내외 민속공예기념품등을 돌아봤다.

◇무역진흥月例회의가 끝난뒤 전시된 민속工藝品등을 살피고있는 全斗煥 대통령.

朴用勳씨에 協同章 全대통령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4일상오 중앙청에서 열린 무역진흥月例회의에서 朴用勳씨(南一皮革공업사사장)에게 새마을훈장 協同章을 주었다.

倫理法案 文案조정 국회 심사6人小委

국회內務委의 公職者倫理法심사6人小委(위원장 柳尙昊의원)는 5일 본회의가 끝난후 모임을 갖고 각위원들의 의견을 취합, 종합적인文案조정작업을 벌인다.

信用狀 來到額 격감

10月末 百75億弗 수출
貿易진흥회의 造船수출 86년에 54億弗로

全斗煥 대통령은 4일상오 중앙청회의실에서 貿易진흥月例회의를 주재, 徐錫俊상공부장관으로부터 최근의 수출입동향과 造船工業현황및 육성대책을 보고받았다.

徐장관은 금년10월말현재 수출실적은 1백75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대비 23.3%의증가를 보였고 신용장내도액은 1백46억8천1백만달러로 증가율이 15.1%에그쳐 매우저조하다고 보고했다. 특히 9~10월동안 신용장 도착액은 현저하게 둔화되어 내년수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있다.

徐장관은 또 올해 선박수출이 연말까지 14억1천6백만달러에 달하여 총수출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8%에 이를만큼 조선공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5차5개년계획 기간동안에도 전략수출 산업으로 조선공업을 중점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조선공업 육성계획은 현재 연4백만톤의 조선능력을 6백만톤으로 확장하고 수출규모도 14억달러선에서 54억달러로 끌어올린다.

이에따라 시설능력을 대폭 확충, 大宇造船에 80만톤급 도크 1개와 三星造船에 30만톤, 20만톤급 도크 각1개씩을 증설하고 5만톤급이하 중형조선소 4개를 증설할계획이다.

또부품의 국산화율을 현재의 40%에서 86년까지 80%로 제고하고 수리도크도 現代尾浦조선소, 大宇조선, 造公에서 모두 7개를 확충하게된다.

徐장관은 선박의 안정적수출지원을위해 연불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했으나 선박부문연불수출자금이 10월부터 12월까지 67억원, 82년에는 8백54억원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책이 요망된다고 보고했다.

徐장관은 또 造船기술수준을 높이기위해 專門設計士양성제도를 도입하고 노르웨이등 유명船級기관과 합작으로 造船技術專門用役會社를 빠른시일안에 설립하겠으며 小型조선의 設計技術지원을 위한 設計센터를 설립,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徐장관은 국제경쟁에 대비키 위해 大型조선소는 1만톤급이상의 선박과 海上플랜트수출에 치중토록하고 中型조선소는 그이하의 수출선과 내수용을 담당토록하여 업무량의 균형화를 기하겠으며 小型조선소는 漁船및 內航船 건조토록하는등의 選別的육성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鄭昌和씨 議員승계

◇鄭昌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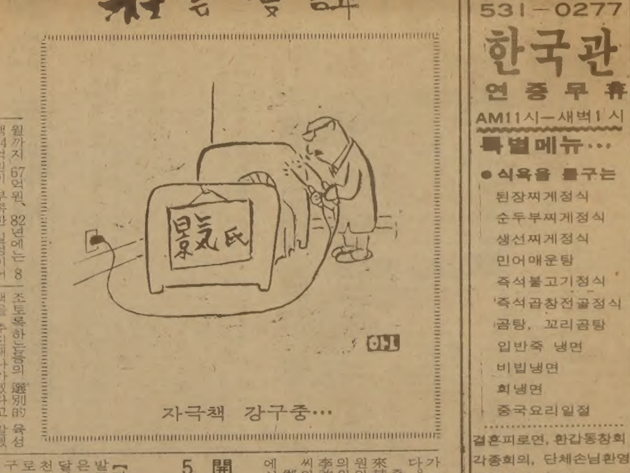
국회본회의는 4일하오 新設되는 電氣通信公社 사장으로 內定된 李祐在의원(民正黨·전국구)의 辭職書를 受理했다. 이에따라 民正黨의 전국구예비후보 1번인 鄭昌和씨(民正黨중앙정치연수원)가 議員職을 승계하게 되었다.

中央선관위는 이날하오 丁來赫국회의장으로부터 李의원의 辭職을 통보받고 국회의원선거법 1백40條에 따라 李祐在의원의 辭職과 鄭昌和씨의 의원직承繼를공고했다. 鄭의원은 5일하오 本會議에서 의원宣誓를 한다.

開途國 外債총액 5천2백40억弗 OECD報告

【파리3日=聯】全세계개발도상국의 81년도 外債총액은 지난80년의 4천5백62억달러에서 15%가 증가된 5천2백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일 밝혔다.

社会漫評


자극책 강구중…

"豫算 轉用 억제를"

국회本會議 追豫 86億삭감통과 附帶조건

국회는 4일하오2시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재출한 原案에서 86억원을 삭감한 총규모 1천8백89억원의 80년도 追更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80년도 결산안과 예비비支出의件으로 부대조건을붙여 접수했다. 부대조건은▲경제및 재정운영계획과 실적과의 괴리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하고▲투자사업등 재정운용을 효율화하는 제도적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며▲미리 豫見되는 경비는 본예산에 計上되도록하고▲예산집행과정에서 目間轉用을 가급적 억제토록할것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개정안등 그동안 각常委에서 통과된 5개法案과 2개同意案을 처리한뒤 6일부터 다시 常委활동에 들어간다.

한편 豫決委도 常委활동과 竝行하여 6일부터 새해예산안심의에 착수한다.

"東京~北京 航空路 北韓통과 合意보도"

北傀, 사실歪曲 處事

政府 外信보도비난

외무부는 4일北韓이 北韓상공을통과하는東京—北京간 直航路線개설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합의했다는 외신보도에 대해『국제항로문제는 관계국간의 사전협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北韓측이 진행중인 교섭사항의 일부를 관계국의 양해없이 마치 완전합의된 것인양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歪曲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외무부의 한당국자는 이날『구체적인 관련사실을 ICAO당국에 확인중에 있다』고 밝히고『日·中共民航機의 北韓상공통과문제는 항공안전을 위한 제반기술적인문제가 수반돼야할것으로 안다』고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정부는 국제民航의 편의를 위해 외국민간항공기가 한국상공을 통과운항하는것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이러한 입장에서 그간 오랫동안 국제민간항공기구를 통해 한반도상공통과항로의 개설문제를 관계국과 비공식으로 조용히 협의해온바있으며 이문제가 조속히, 그리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平壤~元山통과 北傀통신 보도

【東京4日韓聯=聯】北傀는 4일 東京—北京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들이 平壤·元山등의 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고 북괴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東京에서 청취된 북괴중앙통신은 지난주에 북괴민간항공당국과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대표 사이에 이뤄진 협정은 東京—北京항로를 운항하는 모든 국가의민간항공기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北傀는 소련과 중공항공기들이 平壤을 정기운항하고 다른나라들과도 쌍무항공협정을 맺고있었으나 지금까지 어떤국가의 민간항공기들도 東京—北京간의 비행을 위해 北傀상공을 통과하는것을 금지해왔었다.

"체코兵亡命심사중"

美대사관 대변인밝혀

【서울4日AP聯合=聯】한국휴전중립국감시위원단(NNSC)에 배속되어 판문점근무중 탈출, 미국에 정치망명을 요청한 체코병사1명의 망명요구를 아직검토중이라고 주한美대사관대변인이 4일말했다.

이대변인은 이사건의 처리문제를 위해 미국, 한국, 관련국가및 미국의 난민문제고위당국자와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대사관리는 망명한 병사는 리차드·오르차크 1등병(20)이며 체코육군에 1년간복무했다고만말했다. 소식통은 이병사가 아직서울에있다며 거처는 밝히지않았다. 이소식통은 또 그가18세부터 체코슬로바키아를 떠날생각을 가졌다고 전했다.

管轄權은한국에 亡命한체코兵士

외무부는 4일 미국에 정치적망명을요청해온 한국휴전중립국감시위원단(NNSC)소속 체코슬로바키아군 士兵에대한 일차적인 관할권은 한국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駐韓미군에 정치망명을 요청해온 체코사병에대한 일차관할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기자들의질문에 대해『우리정부에있다』고 말하고 현재 주한미군당국의 신변보호를 받고있는것으로 알려진 체코사병의 신병은『한국에있다』고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또『이사병의 정치적망명요청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일용의가 있느냐』는질문에『이번사건은 정치적망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유엔난민절차에따라 취급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전제,『정부는 이를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G)과 접촉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宇宙往復船 콜럼비아號…두번째나들이

地球84차례돌며 實驗

콜럼비아號 날씨개어 예정대로 發射될듯

【케이프카내베랄4日AP聯合=聯】美유인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케네디우주센터의 39A 발사대에서 4일상오7시(한국시간하오9시30분)역사적인 두번째 우주왕복비행에 나선다.

발사를 2시간앞둔 한국시간4일하오7시30분현재 카운트다운은 완벽하게 진행되고있으나 발사이(현지시간)우주센터지역일대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콜럼비아호의 발사가 지연될수도있다고 美항공우주국(NASA)관리들이 말했다.

NASA관계자들은소나기가 올경우 이것이 거대한 외부연료탱크주위를 얼게할뿐아니라 내열타일이 발사때충격을 받을 위험까지 주기때문에 발사가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선 조종사 조·엥글공군대령(49)과 리처드·트룰리해군대령(43)은 이날 새벽2시40분(한국시간 하오4시40분)잠에서 깨어나 예정대로 연료주입을 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올렸다.

한 발사담당자는 카운트다운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무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있으나 다만 일기가 염려되고있다고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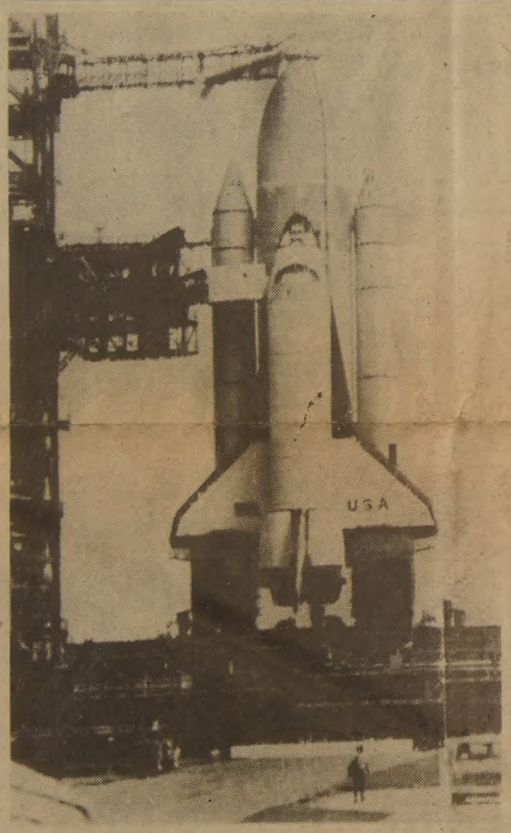
【케이프카내베랄4日AP聯合=聯】콜롬비아호의 연료주입작업은 4일상오7시30분현지시간의 발사시각에 맞춰 예정대로 시작됐다고 NASA관리들이 밝혔다.

그들은『현재 날씨는 매우좋은 상태다. 일기는 차츰갤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세게불고 있지 않다』면서 기뻐했다.

두조종사搭乘 최종점검마쳐

한편 콜럼비아호의 조·엥글과 리처드·트룰리 조종사는 이날 하오6시 나사관리들로부터 최종 브리핑을 들은뒤 신체검사를받았으며 이어 6시40분 콜럼비아호에탑승했다.

또한 발사를 앞둔 카운트다운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것과 동시에 콜럼비아호의 스티브·호울리, 마이크·라운지등 2명의 지원조종사들은 엥글일행이 탑승하기앞서 선내에 설치된 4대의 주요컴퓨터와 통신시설을 작동하는등 발사를 앞둔 최종점검을 마쳤다.



◇케이프캐내베랄우주센터 39A 발사대에서 발사순간을 기다리고있는 콜럼비아號의 위용。【케이프캐내베랄 3 日UPI聯合=聯】

美, 비자發給…日, 再入國 허가

長期留學희망 朝總聯 학생에

【東京3日=聯】미국에서의 1년간 장기유학을 희망하는 朝鮮籍(조총련계)교포학생에게 일본정부가 재입국을 허가하고 미국정부도 비자를발급해주어 문제가되고있다.

최근 오오사까(大阪)출입국관리국은 고오베(神戸)대학의학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있는 朝鮮籍의 具英成씨(30)가 미국테네시대학연구원으로 1년간 연수하기를 희망한데 대해 인도적 견지라는 이유에서 재입국허가증을 내주었다.

이에대해 駐日한국대사관에서는 朝鮮籍교포에게 장기해외여행을 허가하는것은 북괴를 사실상 인정하는 처사라고 지적, 일본법무성에 항의할것으로 알려졌다.

地平線

宇宙공간에 떠있는 아파트群, 人工으로만든山, 나무숲, 公園, 湖水가있는가하면 巨大한太陽熱발전소, 合金工場이즐비하고 無重力으로 心臟病환자가 없는樂園—。 인류가 새로운 모험으로 첫발을내디딘 宇宙都市의 未來圖다。 이宇宙都市의 발판이될 스페이스 샤틀 탐색隊로 航進하는 미국有人宇宙往復船콜럼비아號의 이번 61가지 임무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로보트팔의 작동실험과 난장이 해바라기 생장실험이다。

▼지난5년동안1억달러를들여 만든 로보트팔의 길이는15.2m, 지름38cm, 무게4백53.6kg인데 우주공간에선 무게29.5톤(地上무게)의 화물을 크레인처럼 번쩍 끌어올릴수있다。사람의 팔처럼 폈다접었다 할수있고, 관절엔 모두 모터가內裝되어있어 컴퓨터의 지시를 받는다。우주 로보트가 더 개발되면 저 혼자서 움직여 어떤 물체의 존재를 알아내고 그 위치와 크기를 측정, 보고하는가 하면 위급할 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날이 올지 모른다고 한다。말하자면 宇宙空間의 엔지니어이기도하지만 잡역부, 정찰병 노릇도 할수있는것이다。

▼원래 완전한 노예를 소유하려는것은 옛날부터 인간의 꿈이었다。회랍시인 호머가 상상한로보트가 오늘날엔 실제로 출현했다。이집트의 메무노王 彫像은 입술에 아침햇살이 닿으면 소리를 내는데 이것도 태양을 이용한 로보트의일종이라고 할수있다。사람과 똑같고 다치면 피가 나오며 부딪치면 멍이들거나 骨折이되는 로보트까지 나와 이미 자동차의 안전성 검사에 사용되고 있다。로보트 팔뿐 아니라 로보트 몸통이도 우주 실험에 쓸수있는날이 멀지않아 올듯하다。

▼또 조·엥글선장과 리처드·트룰리 조종사가 가지고가는 82그루의 난장이해바라기는 무중력상태에서의 태양광과 수분의 변화에 따른 성장실험을 받는다。장차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식물을 직접재배, 식량을 조달할수있는가를 타진하게된다。해바라기가 들어가있는 알루미늄컨테이너의 뚜껑을 열었다닫았다 함으로써 季節과 일조시간을 조정할수있고 해충이없는 宇宙農業의 문을 두드리는것이다。콜럼비아호는 83회궤도선회중 우리상공을 10번가량 통과한다고하니 서울이나 부산에서 망원경으로 볼수있다。부디 무사히발사되어 성공 있기를 바랄뿐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531-0277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개정식
순두부찌개정식
생선찌개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염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이대환 不動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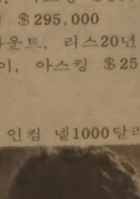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 금주의 새 리스팅 ~~~~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넷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햄버거 샾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세일즈맨
신영하

東国人의 밤

저무는 또 한해를 보내며 보다깊은 우애와 번영을 기약할"동국의 밤"을 아래와 같이 준비 하였읍니다. 부디 부부동반 하시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2월5일(토) 오후7시
장소 : RAMADA INN (185 YORKLAND BLVD, WILLOWDALE TEL : 493-9000(HWY 401 & VALLEY PARKWAY)
회비 : COUPLE당 $30
연락처 : 844-8052 (Mr, 정)
791-6412 (Mr, 이)
282-5632 (Mr, 조)
*「전자올갠 연주자 박홍씨 특별출연」

재카나다동국대학교동문회장
정규영
~~~~

리비아軍、차드서 撤收개시

가다피命令、1만여명…內戰이래 駐屯

【엔자메나·니코시아3日AP=聯】 가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3일 아프리카중북부차드의 내전에 개입한 이래 주둔시켜온 리비아軍을 구쿠니·우에데이 차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즉각철수토록 명령했다고 차드주둔 리비아군사령관이 밝혔다.

이에따라 차드주둔 리비아軍은 이날 차드의 수도 엔자메나 공항에서 소제수송기편으로 철수를 개시했다고 페르시아灣통신(GNA)이 보도했다. 라두아·살라·라두아 네차드주둔리비아軍사령관은 가다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통해 『늦어도2~3일내에 군대를 철수하란』는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프랑스정보소식통들은 차드주둔 리비아軍이 약1만명에달한다고 말했다.

이、撤軍연기 警告

美의 사우디平和案 관심不滿

【워싱턴4日AP=聯】 이스라엘은 만약 미국이 사우디의 중동평화안에 계속 관심을 표할경우 내년 4월로 예정된 시나이반도로부터의 이스라엘軍 최종철수를 연기할지 모른다고 미국을 방문중인 한 이스라엘국회의원이 3일 경고했다.

이스라엘집권 리쿠드黨소속인 요세프·롬 의원은 이날 워싱턴주재 이스라엘대사관에서 열린 한 리셉션에서 이같이 경고했는데 리셉션에 참석한 아바·에반 前외상등 이스라엘 야당의원들도 미국이 지난주 새로운 對중동정책을 시작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軍事협력增大합의

美·요르단、中東平和엔 異見

【워싱턴3日UPI=聯】 레이건 美대통령과 후세인 요르단王은 요르단의 안보강화필요성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중동평화달성 방법에는 이견을 남긴채 3일 이틀간의 美·요르단정상회담을 마쳤다.

레이건 대통령과 후세인王은 이날 백악관 대통령집무실에서 마지막 회담을 가진후 요르단의 소련무기 구입전망에 관한 美관리들의 심각한 우려를 완화시킬수있을만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對政府협상 突破口 모색

波자유노조 百人전국조정위 會議

【그다니스크3日AP·UPI=聯】 폴란드 자유노조는 파업권의 자율적제한및 「국가경제에관한 사회협의회」의 구성문제등을 토의키위해 3일 항도그다니스크에서 1백7人전국조정위원회 회의를 개막, 대정부 협상의 실마리를 찾기시작했다.

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회의개막연설을 통해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체흐·야루젤스키 공산당 제1서기겸 수상및 폴란드 가톨릭 지도자인 요제프·글렘프주교와 연석회담을 가질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참석한 노조지도자들은 자유노조 산하회원들이 중앙의통제를 받지않고 벌이는 산발적인파업을포함, 일체의 무분별한 파업행위를 중지하고 정부와의 광범위한 회담에 즉각 응해줄것을 요구했으며 많은대표들은 야루젤스키수상이 이번회의에 직접 참석, 현안을 논의할수있도록 그를 초청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메아리

陋名과 眞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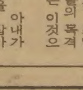
崇儒抑佛의 조선조 사회에선 스님은 구박받는 대상일수박에 없었다. 仁祖때 학자 洪鍾萬은 旬五志라는 수필집을 남겼다. 이저술에 「遇死僧졈杖」이란 귀절이 적혀있다.

우리 속담에 「죽은 중에 곤장 익히기」라는 말이 바로 이말이다. 속담의 해제를 보면 「힘없는 사람을 공연히 괴롭힌다」는말로 설명된다. 스님의 無力感을나타낸 시대상을 볼수있을것 같다.

누명이란 정말 억울한 것이다. 남의 죄를 덮어 씌울때「변명」의 자료가 없다면 꼼짝없이 오라를 질수박에 없다. 이것을 벗겨주는것이 「物證」을 토대로한 과학수사와 수사관 특유의 프로페셔널리즘이다. 텔리비전 인기수사극 꼴롬보형사는 치밀한 추리력과 物證을 들이대며 범인을 쫓는데 그 인기가 모아진다.

범인이 뻔한데 범행을 딱 잡아떼는 일은 수사관의 입장에선 질색할 일일것이다. 그럴수록 心證을 뒷받침할 物證을 찾는것이 현대수사의 기본이라고 생각된다.

범인이 제발이 저린나머지 엉뚱한 선의의 사람을 죄인이라고 몰아 붙였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이 오라를 졌다. 수갑을 채우고 「구속은 수사의 끝」이란 수사관의 자세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교통사고 수사에서 진술서 한장으로 끝장이 났다는 태도는 결코 과학수사란 평을 들을수 없겠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것은 자기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죄를 남에게 전가 시키려는 시민정신의 타락이다.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뒤 後患이 두려워 엉뚱한 신고를 했다. 죄없는 운전사가 어린이들의 목격담으로 잡혀가 사건은 이것으로 끝날뻔 했다.

남편의 결백을 믿는 아내가 끝까지 추격하여 眞犯을 잡아냈다. 아내의 婦德을 칭송하기 이전에 이 사건을보는 사람들은 너무나 대조적인 사회상과 인간성에 깊은 省察을 하지않을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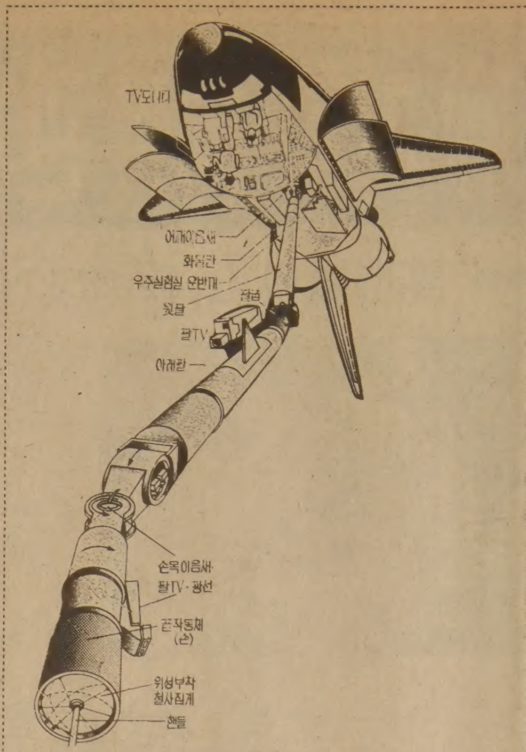
「꿩잡는 것이 매」라고는 하지만 과연 꿩잡는 매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된다. 과오에 대한 책임감、결백에 대한 자기주장, 그리고 이것을 밝혀줄 「法의 정신」이 너무나 아쉬운 세태인것 같다.

地球를 샅샅이 뒤진다

124시간滯空 콜럼비아號 2차登程

鑛物 분포·海洋자원측정 폭풍·습도등 氣象변화도

인사이드



【케이프카내베랄3日UPI=聯】 지금까지 1백15억달러(8조5백여원)나 투입된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가 발사되는 순간부터 지구귀환때까지 조·엥글과 리처드·트룰리 두우주인은 총연장2백만마일(3백20만㎞)에 달하는 전자회로를 갖춘 정교한 추적통신망을 통해 지상과 끊임없는 연락을 갖는다.

이 추적통신망의 심장부는 메릴랜드州 녹지대안에 있는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이다. 이곳에서 기술자들은 콜럼비아호로부터 원격측정과 레이다관선、우주에서 지상으로 보내는 통신등을 받아 휴스턴에있는 존슨우주센터에 중계한다.

고성능안테나와 레이다망을 갖추고 세계18군데에 산재한 지상기지와 국방성의 보조를받는 15개기지등의 도움을받아 고다드센터는 긴급구조센터역할도 하게된다.

발사초에는 플로리다、바하마、버뮤다、안티구아、알룹、버지니아등에 있는 추적기지등에서는 케네디우주공항과 존슨우주센터에있는 발사통제관에게 추적한 정보를 제공한다.

콜럼비아號가 제1궤도에 진입할때는 스페인、인도양상의 시칠리아섬、오스트레일리아、괌도에있는 추적소에서 우주선을 관찰한다.

궤도재진입과 에드워드공군기지에의 착륙은 캘리포니아州에 있는 6개기지에서 조종된다.

이 추적통신망은 국내와 국제통신위성、해저케이블、지상통신선、마이크로웨이브통신망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여러곳에 산재한 추적소와 우주본부를 연결한다.

이통신망은 지난75년 아폴로·소유즈계획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우주와 지상간의 동시음성통화가 가능한 회로와 초고주파무선회로로 되어있다.

착륙직전의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스턴관계자들은 우주인들과 계속적인 무선연락을 갖는다.

국내위성 통신망은 주요 추적소로부터 보내오는 음성·자료·텔리비전영상을 수신하는데 가장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전 우주비행에서의 통신위성이용은 미국과 외국을연결시키는 국제통신위성에 국한돼 있었다.

화물2천4백여㎏

○…콜럼비아호는 이번에 2백53~2백77㎞의 매우낮은 궤도를비행할 예정이다. 그이유는 우주선 화물칸의 적재화물무게가 무겁기때문이다. 고도2백53㎞는 장래의 우주왕복선비행에 가장 적합한 작전고도이기도하다.

적재화물무게는 2천4백25㎏이다. 이들화물은 지구관측및 탐사에필요한 기구들로서 우주인들이 궤도에 진입하는 즉시 사용할 것들이다. 이기구들은 지구의 광물자원과 좋은어장의 위치를 밝혀내기위해 사용되는것이다.

지구관측 7회나

○…우주인들은 2백51㎞지점상공에서 지구에 얼마만큼의 광물및 해양자원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실험기기들을 작동시킨다.

5일동안의 우주여행동안 모두 7번의 지구관측작업이 실시된다.

해양자원측정기기는 바닷물의 색갈이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곳、즉 藻類帶를 찾아 낼 것이다. 이같은실험으로 장래 우주선이 찾아낸 어장은 지구상의 어선단에게 즉각 알려주는 임무를 하게 된다.

특히 海面色検知走査計는 藻類가 밀집돼있는 바다를 찾아냄으로써 어족자원이 어느해역에 가장 많은지를 탐사하며 대기오염측정장치는 우주왕복선에서 방출되는 배기가스가 대기를 어느정도 오염시키는지를 측정하고 대기중 일산화탄소의 농도도 조사한다.

또한 셔틀영상안테나는 지구표면을향해 발사한 레이다波를 받아 사진을 찍게되는데 이 안테나로 1천년전 南美마야族들이 파놓은 길을 찾고 지구및 해양지도를그리며 美캘리포니아州지질단층구조도 밝혀낼 예정이다.

이밖에 우주인들은 일종의 무비카메라인 雷雨촬영장치를 사용、번개방전현상을 찍어 기상예보장치에 이용하는 실험도하게된다.

빛의현상도촬영

○…우주관제자들은 지구관측패키지를 「오스타I」이라고 명명했다. 오스타기기중에는 우주인들이 지구에서 반사되는 빛등 현상들을 즉각적으로 촬영할수있도록 하는 특별 무비카메라가 있다.

특히 지구에서 빛이반사되면 즉각 이 특별무비카메라를잡고 쏘아댈것이다、카메라에 부착된 감지장치는 지구에서 들리는 소리도 함께 녹음한다.

지구 83회 회전

○…우주인들은 우주선에 있는 6개의 창문을 통해 지구를 83회전하는동안 지구의 구석구석을 관찰하게된다.

비상착륙지5곳

○…콜럼비아號는 1차비행때와 마찬가지로 로키트로 지구궤도에 진입한다음 인공위성처럼 지구궤도를선회하다 귀환할때는 날개비행을 하지만 착륙직전의 조종방법은 1차비행때는 조종사가 수동으로 궤도선의 코부분을 높이 들어올렸지만 2차때는 이과정이 컴퓨터에의해 자동화된다.

착륙도 1차때와는 달리 2개의 활주로가 마련돼있다.

우주인들은 모하브사막의 마른 호수바다에 마련된 2개의 활주로중 하강과 착륙때 부딪치는 옆바람을 고려、착륙하기 가장 좋은 활주로를 선택한다.

즉 만일 15번 활주로에 옆바람이 없을경우 23번활주로에 착륙할 예정이다.

83년에 7차례발사

○…제2의 우주왕복선 챌린저號는 내년여름에 케이프 카내베랄로 옮겨진다.

챌린저號는 82년12월 첫비행을할 준비를 갖추고곧바로 교대위치에 들어간다.

83년에는 콜럼비아號와 챌린저號를 바꿔가면서 우주왕복선을 7차례 발사할 계획이다.

우주왕복선들은 보통 한번 발사되면 2개월내에 귀환한다.

또다른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號는 83년에 케이프 카내베랄에 배치되었다가 84년1월에 처녀비행을하며 그뒤를이어 아틀랜티스號가 84년중에 발사된다.【外信綜合】

브레즈네프、SS미사일20諸元 첫公開

3개核彈頭 동시運搬

美와인버거 "蘇는 核戰에 自信感"

【모스크바3日外信=聯】 소련최고회의 간부회의장겸 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는 3일 발행된 서독슈피겔誌와의인터뷰에서 동구권에배치된 소련신형SS20미사일의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브레즈네프는 소련신문들이 1면기사로 일제히보도한 이회견에서 현재 소련이 동구에 9백75기의 「유로전략」미사일을 보유하고있으며 SS20미사일이 3개핵탄두를 운반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처음으로 확인했다.

브레즈네프는 제네바의 전역핵군축회담을 4주앞두고 이같은 SS20미사일의 성능을공개하면서 구형의 SS4와 SS5미사일과 대체한 이신형미사일로 소련군사력이 전반적으로 증강된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워싱턴3日UPI=聯】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 3일 소련이 동일한 발사대를 이용、核탄두적재미사일을 재발사할수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밝히고 소련은 이같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核전쟁이 발발할 경우 무난히 승리할수 있을것으로 믿고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이날 상원외교위청문회 증언에서 레이건美행정부의 전략核군사력증강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소련이 새로 개발한 신형 SS20이동식미사일은 이미 재발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소련과 핵전이 벌어질 경우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생각하느냐는 클레이번·펠의원(民·로드아일랜드)의 질문에 『그들의 행동으로 미루어볼때 소련은 핵전에서 승리할수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게 틀림없다』고 말하면서 소련의 이같은 생각은 그들이 같은 발사대를 이용하여 핵탄두미사일을 재발사할수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데 근거를 두고있다고 설명했다.

콜럼비아號 飛行日程

4일 제2차 왕복비행을 떠나는 콜럼비아호의 우주비행일정(한국시간)은 다음과 같다.

◆4일

▲하오9시30분=카내베랄기지출발(다음날 상오2시10분으로 연기될 수도 있음).

▲하오9시32분=2개의 추진로키트 大西洋에 떨어져 다시 회수됨。고도50㎞ 비행속도 시속4천6백18㎞。

▲하오9시33분37초=3대의 주엔진연료점화중단。고도1백17㎞。비행속도 시속 2만6천8백23㎞。발사대에서의 거리는 동북방 1천2백15㎞。

▲하오9시38분54초=외부연료탱크 떨어져 나감。고도 1백19㎞。속도 시속 2만6천8백20㎞。

▲하오9시40분33초=2대의 궤도방향조정 엔진 83초간 점화,속도를 시속 2만6천9백23㎞로 가속화시켜 고도 99㎞~2백22㎞의 예비궤도에 진입。

▲하오10 12분=방향조정엔진을 73초간 2차 점화, 고도 2백22㎞의 원형궤도진입속도 시속 2만6천6백40㎞。

▲하오10시40분=우주조종사 우주선의 화물실문을개방하고 냉각기를 우주에 노출시킴。

▲하오10시50분=제2차궤도비행시작。

▲하오11시5분=기지화면에 화물실과 기계장치방영。

◆5일

▲상오1시30분=오스타지상관측기구작동

▲상오2시30분=조종사들 첫식사。

▲상오3시51분=가속화능력시험을 위해 방향조정엔진 10초간 점화, 4분간 점화중단후 다시 68초간점화。비행궤도 2백22㎞。비행속도 시속 2백54㎞。

▲상오 4시35분=한 연료탱크의 추진연료를 다른탱크로 이동시키는 시험을위해 방향조정엔진 37초간 4차점화。비행속도시속 2백54㎞。

▲상오5시=화물실의 측정장치가 지상을 관측할수 있도록 거꾸로비행。

▲상오5시12분간 地上에 TV중계, 2분간 방영중단。다시5분간방영후미갑판에 있는 조종사트룰리와 화물실방영。6번째궤도비행시작。

▲상오6시48분=트룰리가 광선관측기구 조작하는 모습을 비치면서 3분간TV방영。

▲상오10시30분=조종사 취침。9번째궤도비행시작。【UPI=聯合】

◇우주왕복선 콜럼비아號 조종사인 조·엥글(左)과 리처드·트룰리가 2일 패트릭공군기지에 도착, 즐거운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보이고 있다. 이들은 11월4일 1백24시간에 걸친 2차비행을 떠날 예정이다. 【케이프카내베랄UPI特電=聯合】

宇宙人등록 15·16年만에 幸運

엥글 2次戰때 공세운 戰鬪機조종사

트룰리 海軍출신 우주船着陸시험 경험

사상 두번째로 우주여행에 나서는 미유인우주왕복선 콜럼비아號선장 조·엥글(49·공군대령)과 리처드·트룰리(43·해군대령)는 미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인으로 등록된지 각각15년과 16년만에 궤도비행의 행운을 맞게된 베테랑 조종사들.

지난 1966년 NASA의 우주인으로 선발된 엥글은 2차대전때 혁혁한공을세운 전투기조종사로 지금까지 1만시간의 비행기록을 보유하고있다.

1964년도 미국저명청년중의 한사람으로 뽑히기도 했던 그는 71년 달착륙을 위한 아폴로우주선의 보조조종사로 내정됐었으나 마지막순간에 지질학자인 해리슨·슈미트(현상원의원)에게 밀려나는 불운을 겪기도했다.

또 지난1965년 우주인으로 선발된 해군조종사 트룰리는 69년 우주체공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16년간이나 우주여행의 꿈이 좌절되는 시련을 겪었다.

비록 두우주인은 궤도비행은 해보지 못했지만 지상모의우주비행훈련과정에서 보잉747機가 우주왕복선을 등에 실어 공중에 띄워 놓았을때 이우주왕복선을 조종、무사히 활주로에 착륙시킨 경험이 두번이나 있다. 그런데 이같은 착륙시험은 콜럼비아號가 우주에서 지구로 귀환할때의 마지막 착륙조종과 같은 것이다.

한편 지난66년 엥글과 함께 우주비행사로 선발됐으나 아직도우주비행을한번하지못했던 베테랑조종사 돈·리드(50)와 브라이스·매캔들리스(41)는 엥글이나 트룰리가 그동안 피나는 지상모의 우주비행훈련을 받아왔다고 하지만 자신들보다 먼저 우주비행 티키트를 따낸데 대해 부러워 하고 있다.【聯合】

사우디 中東平和案 논의

8개항 修正문제도 모색

사우디國王 PLO議長과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3日AP=聯】 할리드 사우디아라비아국왕은 3일 리야드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장 야세르·아라파트와 회담을갖고 파하드황태자가 제시한 사우디의 중동평화계획에 관한 아라파트의입장을 들었다.

관영 사우디 통신은 이회담엔 아랍-이스라엘평화를 위한 포괄적인 8개항 계획을 제시한 파하드황태자가 배석했다고 보도했다.

아라파트는 이계획을 논의하기위해 최근 소련과시리아를 방문한바 있는데 이곳 소식통들은 아라파트가 PLO지도층과 과격파 아랍국정부들로하여금 사우디의 중동평화안을 수락할수있도록 이평화안의 수정을 모색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파하드평화계획은 오는 10일 이곳에서 열리는 페르시아灣 6개국정상회담과 25일 모로코의 페즈서 열릴 아랍정상회담의 주의제로 거론될 예정이다.

좌초蘇潛艦함장 스웨덴、2차訊問

【칼스크로나(스웨덴)3日UPI·路透=聯】 스웨덴은 칼스크로나해군기지근처에서 좌초한 소련잠수함함장 표트르·구진의 1차신문결과가 만족스럽지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재차 신문하기로 했다고 칼스크로나해군기지당국이 3일 밝혔다.

한편 소련은 구진에게 스웨덴측의 새로운신문에 응하되 1일 內港으로 예인된 잠수함을 떠나 스웨덴함정이나 스웨덴영토에서 신문을 받지말고 이 잠수함안에서 신문을 받도록 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하달했다고 스웨덴국방성의 로게르·요한손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대해 스웨덴은 이 위스키급 소련잠수함이 어떻게해서 군사적으로 민감한 스웨덴해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관한 신문이 스웨덴영토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거듭강조、이경우 소련잠수함에서의 신문을 거부함으로써 소련잠수함측과 승무원56명의 석방을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것으로 보인다.

이、駐美대사更迭說

베긴側강경파 物望

【텔아비브4日AP=聯】 에프라임·에브론 駐美이스라엘대사가 조만간 메나헴·베긴수상을 지지하는 강경파 인사로 교체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방송이 3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전임자들에 비해 훨씬 짧은 3년동안 워싱턴에 주재하고있는 에브론대사가 2개월이내에 駐美대사직을 떠날것이며 그 후임에는 집권 리쿠드黨의 강경파 지도자이자 이스라엘의회외교위원회위원장인 모세·아렌스씨가 임명될것이라고말했다.

아시아通信社기구

北傀중앙통신등 9개社新規加入

【쿠알라룸푸르3日베르나마=聯合】 아시아통신사기구(OANA)는 3일 한국의 聯合通信을 비롯한 14개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가운데 제5차 총회를 열고 신규9개 회원사를 가입시켜 기구를 확대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통신사기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모아메드·나하르 OANA사무국장은 이와같은 기구확대가 아시아·태평양지역내 모든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기위해 지난해 뉴델리회의에서 채택된 정관개정에 따른것이며 이기구의 약칭은 종래와 같이 OANA로 계속 사용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533-2361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알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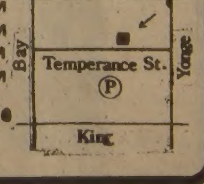
SHANGHAI RESTAURANT

메 뉴: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화~금 11: 30AM~12PM
일요일 11: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864-9347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275-0702 오 영 림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월~목 11: 00AM~10: 30PM
금요일 11: 00AM~11: 00PM
토요일 5: 00PM~11: 00PM
일요일 5: 00PM~10: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368-2470.



동양한약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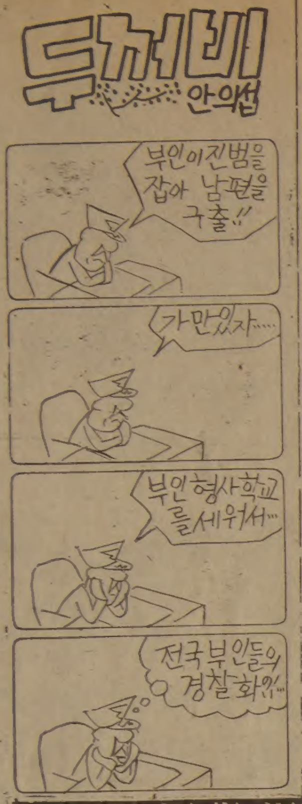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416) 222-9480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2: 00PM~2: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김 선 남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4 PM~4 AM
토~일: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977-9734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서울올림픽 北韓서 볼수있게 板門店에 TV中繼線路 설치

86년까지 光섬유케이블架設

정부는 88서울올림픽을 북한동포도 TV로 시청할수있도록 板門店에 대북한용 TV중계선로를 설치키로 했다.

4일 체신부에 의하면 올림픽통신지원계획의 하나로 나온 이계획에따라 서울-板門店까지 TV중계선로를 오는86년까지 신설, 북한이 연결해갈수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중계선로는 광(光) 섬유케이블로 설치된다.

체신부가 중계선로를 板門店까지 설치하는것은 북한에 인공위성수신시설이 없기때문이다.

端緖조차 못잡아 釜山주부 被殺

【釜山=聯】속보=40대 가정주부 살인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사건발생 9일이 지난 4일현재 범인검거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못한 채 사건발생후 행방을 감춘 李모씨(45·전과2범)、徐모씨(37·전과1범)등 2명의 뒤를 쫓고있다.

경찰이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있는것은 모두전과자이며 이사건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른 범인 인상착의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사건의 유력한용의자로 보고 수사해온 金모씨(47)는 이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혀냈다.

같은동네 꼬마 致死

어린이2명 "함께안논다" 연필칼로 찔러

【江陵=聯】국민학교어린이 2명이 5살난 꼬마가 함께 놀지 않는다고 연필깎기칼로 찔러 숨지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0월24일상오11시40분께 江陵市橋洞 I아파트앞 공터에서 이동네에 사는 周모군(지난해 국교졸업·14)·金모군(모국교5년·10)등이 이 아파트에 사는 沈모양(5)을 연필깎기칼로 얼굴을 찔러 심한 출혈로 숨지게했다.

이들 어린이들은 아파트앞에서 혼자 놀고있는 沈양에게 같이 놀자고 했으나 沈양이 『거지같아 싫다』고 거절하자 분격, 때리고 옆에있던 높이1m·직경75cm의 토관속에 넣은후 연필깎기칼로 얼굴을 깊게 2번찔러 실신시킨 다음 토관밖으로 끌어내 아카시아나무로 둘러싸인 공터에 버렸다.

경찰은 신고를접한후 沈양이 아직 어려 1m높이의 토관속에 들어갈수 없고 주변에 아카시아가 많아 나무에서 실족사한것이 아닌가 보았으나 토관속에 혈흔이 있는 점으로 보아 목격자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끝에 이들2명의 어린이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한편 江陵경찰서는 4일 周모군을 상해치사혐의로 형사입건하고 金모군은 형사미성년자로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그런데 이들 가해어린이 2명은 극빈생활구호대상자들의 자녀들로 부모들이 막노동을 하고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障碍兒는 움츠리지않고… 正常兒는 우쭐대지않고…

우린친구 "어깨동무 授業"

어른보다 童心이 앞장

◇友情으로 겨룬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실시된 통합수업에 참가한 어린이들. 정상아와 장애아(귀에 보청기를 끼었음)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동화돼 체육시간을 즐기고 있다.

함께 노래하며 뛰뛰며…

마음의門 열고 全校에 밝은표정 가득
따돌림 걱정은 杞憂…自信感속에 하루

西江국교·口話校生 5일간 統合수업

장애아들과 정상아들이 사이좋게 공부를한다. 산수문제는 물론 노래도 함께 부르고 공을차며 나란히 운동장을달린다. 장애아라해서 움츠리는 기색이없고 정상아라고우쭐거리지도 않는다. 어린이라는 유대감 속에서 모두가 행복할 뿐이다. 올해는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장애자의 해」. 서울西江국교(교장 鄭興敎)는 말로만 장애자를사랑하고 형식적으로 돌보는 사회풍조를 탈피하기나하듯 정상아들이 장애아들을 이해할수있게하고 장애아들에게 사회복귀에의 자신을 주기위해 장애아들을 정상아들과 뒤섞어 통합수업을 실시하고있다.

이 학교는 이웃에 있는 한국구화학교(교장 崔秉文) 청각장애아동 70명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난3일부터 각반에 분산, 수업에들어갔다.

11일까지 5일동안 계속될 통합수업은 장애아들에게 정상아들과 함께 수업을 받게함으로써 정상사회에서 살아갈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게 물론 주된 목적이다.

모든 장애아들도 사회에완전통합·완전참여해야 한다는것이 복지사회의 목표인점에서 이번에 시도된 통합수업은 특수학교의 울타리안에서 움츠려만있던 장애아들에게 자신감을 길러주는 최상의기회임이 드러나고 있다.

鄭교장은 『첫날은 어린이들이 조용히 앉아움츠리면서 눈치를 살피다 교사가 따뜻하고 다정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자 하루가 지나면서는 떠들고 까불고 장난을 치며 그렇게 좋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화학교 최창도교사(37)도 『특수학교에서의 성장은 일반사회로의 완전참여를 위한 과정인데 특수학교의 교육만 받고서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면서 『이번과 같이 일반학교에서 정상 어린이들과 함께 공부를 함으로써 감정적유대를 강화하고 일반사회의 언어를 깨우쳐 함께 살아갈수 있게 하는데 커다란 촉진제가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구화학교 6학년 권내영양(13)은 하루동안 일반어린이들과 수업을 받고나서 『담임 선생님이 노래를 시켜서 고향의봄을 2절까지 불렀다. 앞으로도 또한번 했다. 정상애들처럼은 못했지만 자신감은 가졌다』며 『문제없어, 재미있어』하면서 밝은 표정이었다.

또 구화학교 5학년에 자녀를 둔 金모씨(40)는 『장애아의 학부모입장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을 듣고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하지않을까 걱정했었다. 그러나 집에 온 애가 산수문제를 풀었다든가 일기쓸것이 많아졌든가 자랑하며 그렇게좋아할 수가없어 마음이 놓였다』며 이런기회를 자주 만들어주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西江국교 한교사도 『처음 한두시간은 마음의 문을 열지못해 어린이들이 서먹서먹하다가 어린이 특유의 감정으로 쉽게동화, 노는데서 정상아·장애아를 구별할수없을 정도로 서로 친해졌다』고말하고 자신은 이해할 수 없는 더듬거리는 말을 어린이들은 쉽게 알아들어 첫날 수업이 끝나고는 함께 운동장에서축구를한는 단계였다고전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실시한 이번 통합교육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통합교육에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해심이 많지않다고 지적, 관계당국의 협조와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장애아들의 사회복귀를 적극 도와줘야한다고 주장했다. 【盧基昌기자】

詐欺사건 昨年比50%늘어

"3億 最新장비도입·人權옹호萬全"

李法務 "初動수사부터 검사지휘" 밝혀

李鍾元법무부장관은 『최근 강간살인·특수강도·살인·폭발물투척등 강력사건이 연속적으로 빈발할뿐아니라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지고 있어 강력한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전 검찰은 강력사건발생시 강력전문검사를 전담검사로지정하여 초동수사단계서부터 치밀한 과학수사를 전개하고 인권옹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4일 大邱고검과 지검을 초도순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말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단시일안에 강력전문검사 교육을 실시하고 3억여원의 과학수사장비를 도입, 이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금년들어 사기사건이 작년에비해 50%이상 격증했을뿐아니라 그 유형도 고도로 지능화되고있다고 지적, 이에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한편 특히 취업사기 전세금사기 서민계사기 어음환사기등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아울러 李장관은 최근 大邱 시내에서 발생한 금복주사장 金泓殖씨집 폭발물투척및 3억원협박사건을 빠른 시일안에 해결토록하라고 大邱지검에 지시했다.

高大生2명 除籍

示威주동拘束, 4명은 有期정학

高麗大는 4일하오2시 교무위원회를 열고 지난달29일 교내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趙錫賢군(22·법학과3년)과 郭乃赫군(21·철학과3년)등 2명을 제적처분했다.

高麗大는 또 이시위와 관련, 경찰에의해 구류15일씩을 받은 李南熙군(20·사회학과2년)등 4명도 3주유기정학처분했다.

제적된 趙군등은 지난 29일 낮12시50분께 서관앞에서 학생3백여명이 모인가운데 「반파쇼 민주투쟁선언」이라는 유인물을 뿌리고 반정부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동했었다.

示威주동 高大生을 拘束

서울城北경찰서는 4일 교내에서 반정부시위를 주동한 高麗大철학과3년 郭乃赫군(22)을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郭군은 지난달29일 낮12시50분께 高麗大서관앞에서 「12·29반파쇼투쟁선언」이란 유인물 3백여장을뿌리며 반정부시위를 주동했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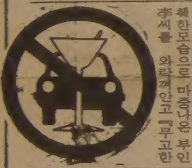
뺑소니眞犯 잡혀…男便석방

"내남편은 罪가없다" 執念의 再會

아내가 되찾아준 人權

속보=억울하게 뺑소니 사고 범인으로몰려 구속됐던 승용차운전사 田明燮씨(28·서울江南區方背1洞92의7)가 구속된지 26일만인 3일하오6시30분께 서울지검東部지청에서 석방되고 사고를 낸 뺑소니 오토바이운전사 鄭鍾福씨(44·方背1洞山54의1·S요쿠르트대리점주인)가 구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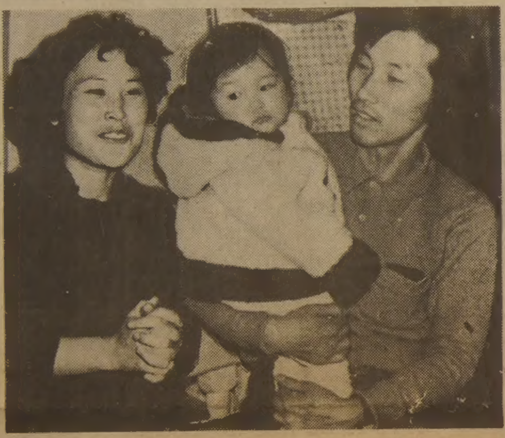
서울지검東部지청 李鍾旺검사는 田씨의 아내李善子씨로부터 진정을받고 즉각 재수사에나서 鄭씨가 사고를당한 崔대한군(9·方背국교3년)집으로 崔군의 부모를찾아가 『합의를 보자』고 3차례나 종용한 사실을 밝혀내는한편 사고현장목격자 金鍾德씨(33)와 李大龍씨(34)의 진술에따라 鄭씨를 진범으로 확인, 이날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구속하기에 이른것.



이날 城東구치소에서 풀려난田씨는 수염이 텁수룩한초췌한모습으로 마중나온 부인 李씨를 와락껴안고 『무고한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는법이 어디 있느냐. 억울해서 못살겠다』며 경찰을 원망했다.

또부인 李씨는 『남편과 같이 억울한일을 당하는사람이 두번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흐느꼈다.

한편서울시경은 4일뺑소니 사건의 범인을 잘못구속시켰던 冠岳경찰서에대한 감찰조사에 나섰다.



◇그리던 딸 얼싸안고… 억지구속 26일만에 석방된 田明燮씨가 집에 돌아와 딸 [illegible]양을 껴안고 부인李씨와함께 기뻐하고있다.

總警·警正 百19명 昇進

治安본부 심사발표

치안본부는 4일 금년도總警、警正 승진후보자 1백19명(總警70명、警正49명)을 심사발표했다.

前서울市 住宅局長 징역 3年宣告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許正勳부장판사)는 4일 遞信공영아파트 신축허가를둘러싼 뇌물공여사건 선고공판에서 전서울시 주택국장 孫曰秀피고인(49)에게 특가법을적용, 징역3년·추징금6백5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에게는 최고징역1년·집행유예2년에서 징역8월·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피고인별 선고형량은 다음과같다.

▲尹日燮(43·전주택행정과장)=징역8월·집유1년·추징금50만원▲李相翼(45·〃)징역8월·집유1년·추징금1백만원▲郭寓榮(46·전주택행정계장)=징역1년·집유2년·추징금2백50만원▲吳基哲(48·전주택관리과장)=징역1년·집유2년·추징금2백만원

珍島거점 間諜 朴東運에 死刑

서울地法 宣告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金憲武부장판사)는 3일 전남珍島거점간첩단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주범인 고정간첩 朴東運피고인(36·전 農協珍島군지부예금담당)에게 간첩죄와 반공법위반죄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사건과 관련, 간첩죄、반공법위반、간첩방조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朴京俊피고인(48·전珍島郡古郡面부면장)에게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을、李守禮피고인(57·사채업자)에게 징역5년·자격정지5년、朴根洪피고인(34·전水原연초제조창직원)에게 징역5년·자격정지 5년、許炫피고인(43)에게는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故障신고 4日경과 電話局서 조치없어

【議政府=聯】議政府전신전화국이 전화고장신고를 받은후 4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어 전화수용가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

議政府전신전화국 가입전화번호 4000번의 경우 지난달 31일 고장을 일으켜 즉시 110번에 고장신고를 했으나 나흘째인 3일하오까지 고쳐주지않아 회사업무 연락등이 마비상태에 빠져있다는것.

馬場어린이집등 李順子여사參席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4일하오 서울城東區馬場洞 馬場어린이집과 道峰區上溪洞 盧元어린이집 개원식에 차례로 참석, 테이프를 끊은뒤 원아들에게 원아복등을선물했다.(사진)

李여사는 이에앞서 청와대에서 마이크 신임駐韓오스트리아대사(일본常駐)부인의 예방을받고 환담했다.

올 小波賞에 李方子 여사

새싹회(회장 尹石重)는 4일 81년도 소파상(小波賞) 수상자로 80회 생신을 맞이한 영친왕비 李方子여사(사진)를 결정,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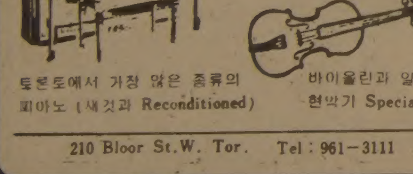
李여사는 정신박약아를 위한 慈惠학교를창설했으며 지난65년 신체장애자의 보금자리인 明暉園(경기 光明市鐵山洞)을 창립, 이땅의 불우한어린이와 더불어 여생을보내고있다.

새싹회는 오는 20일하오2시 明暉園에서 시상식을갖는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중앙 AUTO-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 · 악기수리 · 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 598-0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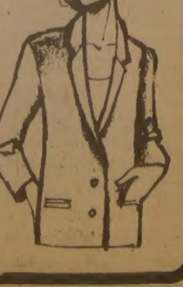
가나안교회 창립 제2주년
기념 부흥성회
"어찌하여 자느냐"
존경하는 교민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총이 귀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교회에서는 창립2주년을 맞이하여 "백화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의 잔치를 베풀고져 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부디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1월13일(금)
〃 14일(토)
〃 15일(주일)
오후7시30분
장 소 : 가나안 장로교회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로얄·욕크와 에그린톤 만나는 지점에서 한 골목 북쪽)
강 사 : 백 화 기 목사
강사소개 : 학력 – 대구 계명대학 졸업
한국신학대학 졸업
침례교 신학대학및 대학원졸업
캐나다 크리스찬 대학 졸업
경력 – 포항침례교회 담임
영남침례신학교 교장
한국침례회 총회 총회장
포항시 기독교 연합회장
한국부흥사협회 회원
사모아 선교회 이사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지 부흥집회

가나안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정준및 교인일동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 ~ 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534-2003



들뜬마음 가라앉히고 大會준비 突入

88년 冬季올림픽 開催地 캘가리市

적은비용 投資 알찬大會다짐

【터론토支社 柳承珉기자】

바덴바덴 IOC(국제올림픽 위원회) 총회서 오는 8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캘가리(CALGARY)市는 올림픽 유치의 흥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대회준비에 박차를가하고있다.

캘가리市의 지도층 인사들은『적은 비용으로 가장 알차고 모범적인 동계올림픽대회를 만들어 보자』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서울이 88년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얻기위해 2년간 노력한 반면 캘가리는 30년전부터 꾸준히 노력한끝에 결실을 맺어 캘가리 시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한국인들에게 캘가리는 생소한 이름이다. 흔히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는 호숫가나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지방의 겨울철휴양도시들이 연상되지만 캐나다 중서부에 위치한 캘가리는 휴양도시도 아니고 행정도시도 아니다. 현대산업의 총아인 기름도시이다.

지난6월의 통계에 따르면 캘가리의인구는 59만 1천 8백 57명이며 연평균인구증가율 5·8%에서 1산에의한 자연증가율은 1%미만으로 알려져있다. 세계곳곳에서 캘가리의 기름을 노려 몰려들고있다.

캘가리가 속한 알바타주는 캐나다의10개주중 가장 못대가 세고 돈이많은 고장이다. 기름때문이다.

알바타주의 수도는 한국야구대표팀이 출전했던 대륙간컵쟁탈 세계야구대회가열린 에드몬톤서 약 1백50여㎞ 남쪽에 위치한 곳이다.

8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4년전에 올림픽유치위원회를구성,위원장에 석유업자 프랭크·킹씨를 선임했다. 킹씨와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은 세계를50회이상 왕복, 여행거리만도 2백만㎞를 넘었다는 이야기였다.

76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했던 몬트리올市는 약10억달러의 적자를 남겼으나캘가리市의경우 상당한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알바타주의 특히든 주수상을비롯 알바타주의 관민이 혼신의 힘을 쏟고있다.

올림픽자체예산을 4억1천5백만달러로 잡아놓고 연방정부의 보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주정부의 재정이 여유가 있어 재정적으로는 큰 문제가없다.

아이스하키고장… 自負心대단

30년전부터 꾸준한 努力의 結實…기름 都市

캐나다의 한인동포 약 4만명 가운데 6천5백여명이 알바타주에 살고있다. 캘가리에만 2천5백여 우리동포들이 잡화상, 주유소, 석유산업체의 공원등으로 일하고 있으며 유학생도 상당수가 있다.

캘가리의 자랑은 북미프로 하키리그(NHL)의 캘가리 프레임스와 캐나다 풋볼리그(CFL)의 스탬패더, 북미프로축구리그(NASL)의 붐머스이다. 프레임스하키팀은79ㅡ80년까지는 미국 애틀랜타시 소유로 하위권에 머물었다가 캘가리가 새로 이팀을 사들이자 80ㅡ81시즌서 NHL결승토너먼트 준결승까지 진출한바 있다.

시설면에서는 캘가리가 동계올림픽을 치르기에는 여러가지 부족한점이 많다. 천연적인 슬로프가 없없기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이유때문에 일부에서는『캘가리가 돈으로 산을 만든단』는 비난까지 나왔다. 그러나 한가지 잊지말아야할 사실은 캐나다인들의 성원이 대단하다는 점이다.

캐나다인들은 스스로 세계제일의 아이스하키 왕국을 자부하면서도 아직까지 한번도 올림픽서 우승하지 못했다. 북미 프로아이스하키 선수의 80%가 캐나다 출신이어서 실직적으로는 최강이나 아마선수만참가하는 올림픽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못했다.

최근 몬트리올등 캐나다 4개도시서펼쳐진국제하키대회 결승전서도 소련에8ㅡ1로져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다.

아이스하키에서는 캐나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국도 80년 레이크플래시드(미국)서 열린 동계 올림픽 아이스하키 결승전서 강적 소련을 물리치고 우승했다. 미국의 우승에 자극받아 캐나다는 아마선수만으로 아이스하키 금메달을 노리고있다.

캘가리시에 많은 한국동포들이 살고있기때문에 한국선수단이 88년 동계올림픽에출전하면 여러가지 도움을 받게될 것이며, 88년 서울올림픽 유치로 자부심을느끼고있는우리동포들은 벌써부터한국선수단에대한 뒷바라지를생각하고있다.

◇8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캐나다 캘가리로 확정되자 캐나다 동계올림픽 유치단이 환호하고 있다.

在日동포 居留民團 曺체육회장訪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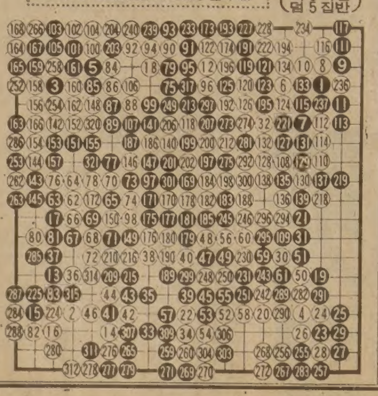
選手 육성基金전달

모국을 방문한 재일거류민단 간부(단장 權赫…사무총장…)들이 4일하오 曺相鎬대한체육회장을 방문,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선수육성기금으로 75만원을 전달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제⑬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5局 總譜322手完黑3집半勝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 姜哲民〈2敗〉

黑(4段) 姜勳〈2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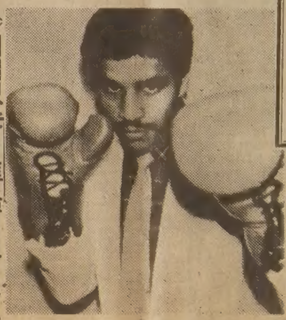
姜4段 끈기의 逆轉勝

이로써 姜4단은 연2승을 올리고 姜6단은 연2패, 양자의 입장이 천양지차로 벌어졌다. 원래 끈기면에서 이들은 막상막하, 아니어쩌면 캐리어가 많은 姜6단쪽이 더 질길것 같았는데 이제 새삼 姜4단의 끈기를보고 놀라지 않을수가없다.

林海峰9단을「2重의 허리힘」이라고 일본기사들은 말하는 모양이지만 그런식이라면 姜4단은「20重의 허리힘」을 발휘했다고 할수있다. 그야 흑이 여러차례에 걸쳐 勝機를포기하다시피 해가면서 욕심을 부린탓도 있겠지만 좌우간 절대절명의 바둑을 끝까지 물고늘어진 것은 놀라운일이 아닐수없으며 장장322수에걸친 치열한 전투도근자엔보기드문기록이다.

當초 黑33으로 하변白陣에 뛰어들어 간것이 소탐대실, [illegible] 없는 過手였다. 중앙을 白60까지 싸바른데서 포석은 白이 확실히 리드한 폼이고 다음 黑65이하의 공중전 역시 79까지의 변화는 黑의 성공이라고 단정할수 없었다. 또 상변黑119의 침입도 139까지 교환되어 黑의실패. 이대로 白의楽勝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黑대마에 욕심이생긴 白은 146, 148로총공격을 개시, 난전을 자초하더니 그후도 몇번인가 승리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패마저져서 분패했다. 205, 211, 217, 223, 229, 235, 241, 247…2 32, 238, 244…202. 199. 208, 214, 226, 2 1…3. 264…258. 293…2 12. 298…135, 302, 31 0, 316…262. 305, 313, 319…253. 308…41. 318…125. 322…262. 소비시간白=4, 59, 黑=4, 20.

【一凡】



◇엄지없는 권투글러브 첫선

아이세니버란은 신형복싱글러브(左)가 최근뉴욕에서 첫선을보였다. 재래식글러브(右)와는 달리 마치 벙어리장갑을닮은 이글러브는 엄지손가락을 끼우는 부분이없어 경기도중 선수가 눈과엄지손가락에 부상을입을 염려가 훨씬적은것이 특징. 이장갑은 뉴욕체육위원회의 주문에따라 에벌레스트社가제작한것이다.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㉔

自由黨의 횡포가 극심해 가던 시절, 서울에는「또하나의 景武臺」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西大門에 있는 李起鵬의 집을 이르는 말로「西大門景武臺」라고 했다.

천하의 阿附輩들은 세상을 만났다. 政界、財界등 온갖 곳의 아부群像들이 西大門에 몰렸다. 貪官汚吏의 跋扈라는것은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었다. 邪惡한 政商輩모리배들은 곳곳에서 날뛰면서 私利私慾을 채우고 나라살림을 좀먹는가 하면 나아가 나라의 기강을 뒤흔들었다.

미국에서조차 우리를 소망없는민족으로 내려다보았고 심지어 한국을 수렁이라며 머리를 흔들 지경에 이르렀다. 부패·부정의 무리들은 對美인식이고 국제정세고 깜깜절벽이었다. 그들에게는 오직 利己와 권세만 보였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景武臺의 벽은 더욱 높아만 갔고 앙심있는 사람들이 李承晩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다. 오랜 自由黨의 專橫시절 나의경우 李 대통령을 고작 2번밖에 못만났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을까.

自由黨의 아첨배들은 李 대통령의 눈을 철저히 속였고 경무대를대중으로부터 격리시켜 놓았다. 이른바 비서정치라는 人의 帳幕이 두껍게 내려지기시작한것도 이때부터였다.

그 자유로왔던 언론조차도 李起鵬一派에 대해선 비판을 삼가는 눈치였다. 언론은 李 대통령에대해선 독재자로 몰면서도 自由黨무리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柔弱했다. 李起鵬일당은 막대한 정치자금을뿌렸다.

이른바 자신들의 권세와 지위를 유지、확장하기위한 수단으로 자금공세를 폈다.

副統領 출마

李起鵬출마에 분개…沮止위해 나서
他候補들과 合同作戰…張勉이 당선

이런 분위기속에 56년 5월 正·副統領선거(3代 대통령·4代 부통령)가 실시됐다. 自由黨은 선거에 앞서 대통령후보에 李承晩, 부통령후보에 李起鵬을 지명했다. 民主黨은 우여곡절끝에 대통령후보에海公 申翼熙, 부통령후보에 雲石 張勉을 내세웠다. 排石 趙炳玉이 海公과 대통령후보를 겨루다 黨內일각의 만류로 사양, 勇退한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李 대통령은 당시 부통령에 출마한 李起鵬에대해 담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李 대통령자신이 李起鵬을 부통령후보로 하라는 직접적인 말도 없었다. 李起鵬의 추종자들이 전당대회에서 脚本대로 추대했고, 李 대통령에게는 전당원들과 여론의 뜻이라고 허위로 보고하여 결국 기정사실화 시켰다.

나는 李起鵬이 부통령이 된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개인보다도 그를 둘러싼 아첨배들이 나라를 그르치게할 우려가 있기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이 의도하는 계획을 분쇄하기위해 내가 이끌어온 大韓國民黨의 부통령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결국 대통령에는李 대통령외에 申翼熙(民主黨)曺奉岩(進步黨)이, 부통령후보엔 李起鵬 張勉과 나외에 李範奭(共和黨), 白性郁(無)、李允榮(朝民黨)、朴己出(進步黨)、李鍾泰(無)가 나섰다.自由、民主黨이외의 우리 제3후보들은 李承晩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편 李起鵬과 自由黨에 대해선 비난공세를 폈다.

나는 당선을 바라 출마한 것이아니었다. 내가 낙선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환하였다. 오직 李起鵬을 떨어뜨리는데 一助를 해 상대적으로 張勉이 당선되기를 바랐다.

나는 비록 맨손이고 조직도 없지만 갈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다니며 지원을 호소했다. 방해도 많이 받았다. 民主黨사람들이 당한 이상의 고초를 당했다. 麗水、順天、清州등지에선 경찰이 직접 나서 군중을해산시켰다.

清州 無心川邊에서 있었던 강연회에서는 경찰의 방해를 무릅쓰고 유세를 강행했다. 이때 군중을 해산시키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친 경찰간부는『선생님, 죄송합니다』는 말을남기고 꽁무니를 빼기도했다. 李允榮씨는 아예 강연도 못하고 쫓겨났다.

金泉에서 한 여관집주인은 1주일간 숙식비를 받지않고 나를 대접해주기도했다.

투표 전날엔『尹致暎후보가 기권했다』는 매터도가 나와 사방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야단이었다. 당시 나와같은 제3의 후보들을 두고 李 대통령에 대한「짜사람 出馬」라는 말도 있었으나 나는 李起鵬을 한사코 낙선시켜야된다는 소신을 갖고 뛰었다.

선거가 중반전에접어든 5월5일 유세중에 海公이 裡里에서 急逝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海公의 서거는 民主黨진영에는 뼈를 깎는 아픔이 었지만 張勉의 부통령당선에는 더욱 동정표가 몰리게 했다. 결국 대통령엔 5백만표를얻은 李박사가 2백만표를얻은 曺奉岩을 누르고 壓勝했다. 부통령엔 李起鵬이 낙선하고 張勉이 당선됐다. 나는 李範奭에 이어 4位였다.

당시 경무대경찰서장을 지내다 차안국장이된 金長興은 선거후 나에게『죄송합니다. 죄많이 지었읍니다. 진상이나 아십시오』라며 이런 말을 했다. 개표때 나에게 온1백50만표중 25만표 가까이 남기고는 다떼어가고 李範奭의 표는 80만표중 30여만표만 남기고 나머지를 떼어갔다고 했다. 기가찰 노릇이었지만 어이가 없다못해 웃고말았다.

그래도 나는 無法天地에서張勉이 당선된 것을 큰 다행으로생각했다.

「못살겠다、갈아보자」라는 民主黨의 구호가 나온 것이 그때거였다.

선거가 끝난뒤 야당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對與공세를 강행했고 政局은 갈수록 昏迷를 거듭했다.

◇56년 3·4代正副統領선거에서 李起鵬의당선을 막기위해 온갖탄압을 무릅쓰고 부통령에 출마했다. 사진은 당시 東和 백화점(현新世界)에 걸렸던 自由黨의 선전물.

서울開催 世界野球 體育會, 조직위확정

대한 야구 협회는 82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기구와 각 분과위원을 확정 발표했다.

그외 대회의 원만한 운영을위해 야구원로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관계부처및 유관단체 인사들로 구성된기획 조정위원회가구성되었다.

◇조직위분과위원

▲위원장=林光廷▲부위원장=盧殷錫·金相謙·孔德鍾·柳孝燮▲사무총장=許宗萬▲총무=宋鉉淳(총무·金起勳)▲재무·張泰英 식전金戴松)▲운영=金東燁(경기金東燁·심판閔俊基·기록 李圭伯·시설 馮圭明)▲관리=李八官(수송 南周鉉·의무 金舜謙·경비 朴善昌·선수촌 毛無說)▲홍보 국제=朴象圭·홍보 李奎星·의전高哲鎬)

일요학교 학생모집

덕명새마을 중·고·등실업학교(전화㉞1465)는 근로여성,청소년,주부,독학생을 대상으로 일요일마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기위해 학생을 모집하고있다. 나이제한은 없으며 학비는 무료이다. 접수마감 23일.

女性副業교실 開講

한국여성의 집 강남지부는 꽃꽂이, 동양매듭, 한지공예, 박공예등을 과목으로 부업교실을 개강한다.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으로 나눠 수강신청을 받는다. (㉕1-8888)

流星의 賦 〈226〉

李炳注 作 李友範 畫

秋風何處至 ㉔

이 무렵 선조(宣祖)가 내린 교서(敎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내가 덕이 모자라고 어두운 자질을 타고난 처지로 왕업(王業)을 지켜온지 20년, 항상 험한 고빗길을 걷는 양 조심하며 만백성을 교화시키려고 애써왔는데 역적의 괴수가 벼슬한 자들 가운데서 나왔으니 이 어찌 기막힌 일이 아니겠는냐. 역적 정여립은 어미를 잡아 먹는 올빼미보다도 더 악하고 독사보다도 독한 놈일뿐 아니라 그 글재주를 미끼로 하였으니 왕망(王莽)이 세상을 속였던 것과 같고 참서(讖書)를 만들어 백성들을 현혹했으니 요술로 사람을 속여 반란을 일으킨 원말(元末)의 한산동(韓山童)같은 놈이다. 닭이 알을 품어 병아리를 까듯 해준 은혜를 잊고, 감히 반역을 피하였으니 진실로 용납할 수가 없구나. 변숭복,박문장,박연령,김세겸,이광수,이기,방응룡,방의신,황언륜등과 공모하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나니 그 죄상은 너무나 명명백백하다. 옥(玉璽)을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하고 도성(都城)에 흉한(兇漢)들을 풀어 무기고(武器庫)를 불사르게 하였으며 술사(術士)를 산중에 보내어 단군의 옛터를 소굴로 만들려고 했다. 그뿐인가. 임금의 명을 위조하여 병사(兵使)、수사(水使)를 없애려고 했고, 병부(兵符)를 만들어서 서울을 치고 화란을 꾸미려고 했다. 병조(兵曹)의 장을 죽이고 창을 휘둘러 대궐을 범하려 하였으니 장차의일이 어찌 될뻔했던가. 시종하던 신하로서 역적들의 괴수가 되었으며 의관(衣冠)한 선비로서 미친 개의 마음을 품었다고 할것이다. 난신(亂臣)과 역적이 기왕에도 없었으리오만 이보다 더 심한 일은 없지않았을까 한다. 그 죄 실로 만 백성이 모두 미워하는 바이다. 이에 가담한 자들은 누구나 죽여 없앨 작정이다. 비록 역적 범엽(范曄)에게 형(刑)을 주진 못하였으나 역적 왕돈(王敦)의 송장을 끌어내어 참형(斬刑)을 집행한 고사(故事)가 있으니 역적 여립등을 능지처참(陵遲處斬)하노라. 아, 천망(天網)이 소이불루(疎而不漏)하여 이미 용서할 수 없는 형(刑)을 시행하였으니 여러 백성들은 모두 한결같이 기뻐할지니라』

이것은 대제학 이양원(李陽元)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선조의 본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다.

임금의 뜻이 이러했으니 그 옥사의 진행이 어떠했겠는가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런 까닭에 각지각층에서 소(疏)의 형식을 빌어 홍수처럼 밀고(密告)가 쏟아져 들어왔다.

밀고 가운데 물론 과장된 것도 있었고, 날조된 사실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 이름이 적히기만 하면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이 되거나, 심한 고문끝에 죽기도 하였으니 정여립과 다소의 면식이 있는 사람이면 전전긍긍할 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까의 그 교서를 쓴 이양원(李陽元)이 정여립을 황해도사(黃海都事)로 기용시키기 위해 천거한 장본인(張本人)이라고 해서 문제가 복잡하게 되기도 했다. 말하자면 어느놈이 어느놈인지 모르는 가운데 밀고의 난무(亂舞)가 있었던 것이다.

모눈종이 위의 生 〈245〉

趙善作 作 金光培 畫

모눈종이 위의生 ⑫

그들중의 어떤 사람은 줄자로 카메라와 배우 얼굴까지의 거리를 열심히 쟀고,또 어떤 사람은 손아귀 안에 드는 작은 기계로 배우 얼굴에 비친 햇빛의 양을 알아보는 듯 싶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를 실은 작은 활차(活車)를 밀기도 했으며, 소형 흑판에 백묵으로 무엇인가를 써서 카메라에 찍히우는 일을 하는 사람, 배우가 듣고 따라 하도록 큰 소리로 대사를 읽어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멀리까지 카메라가 쳐어낼 수 있는 각도안에 무심코 들어온 구경꾼들을 쫓아내는 일을 맡고있었다. 이런 모든 스태프와배우들을 통어하기에 U감독은 잠시의여유도 없어 보였다. 몇달전 기차 안에서 가십게의 거석이니 뭐니 하며 한갓 여배우들의 흔한 뒷 이야기에 열을올렸던 그답지 않게 U감독은 당당하고 자신에 차 보였다.

촬영의 각도가 바뀌면 각 분야의스태프들은민첩하게기계와 도구를 옮겼으며 구경꾼들은 그때마다 새롭게 정리되곤 했다. 이리저리 우르 몰리곤 하는 구경꾼들속에 섞여 자리를 옮기며 나는 쓱스럽고 부끄럽기도 했는데 나는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이런 우연한 장소와 나와는 무슨 상관인가 따위의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쳐 손톱을 을 짓기도 했다.

거의 두 시간쯤 그렇게 구경을 한뒤 마침내 휴식 시간이 돌아왔다. 스태프와캐스트들은 근처로 흩어졌고 구경꾼들도 일부는 마을 쪽으로 철길을 건너 사라지기 시작했다.

감독은 플랫폼 아래 쪽의 플랫폼으로 누군가 가져다놓은 야전용의자에 가서 앉았다. 그는 주변에 흩어앉은 카메라맨과 조명 기사,한 사람, 그리고 배우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가까이 갈수가 없었다.

대신 나는 내 근처를 지나는 스태프 한사람에게 U감독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U감독 쪽으로 가무엇인가 말했고 그러자 U감독이 내쪽을 돌아보았다.

그는 머리를 돌리고 잠시 내가 누구인가 눈여겨 보는 듯싶었다. 그랬다가는『아, 미스안』하고 소리치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는 먼저 나를 그쪽으로 오라고 손짓했다가 곧 그 자신이 내쪽으로 걸어왔다.

『웬 일요. 여긴 어케 알고 찾아왔지요?』

『기록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었잖아요?』

하고 나는 조금 웃으면서 그를 올려다 보았다.

U감독은 잠시 어이없는표정을 지었다가 말했다.

『그래서 이시골 구석까지 찾아온 거요? 그렇다면 갸륵해서라도 일을 맡겨 드려야 하는데…』

U감독은 팬스레 뒤쪽의 동료들을 돌아보는 등 낭패스런 표정을 지었다. 내가 말했다.

『아녜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궁금해서…회사로 전화를 해 겨우 알아냈어요. 여기에서 주욱 촬영하시나요?』

『며칠 걸릴 겁니다. 저쪽으로 갈까?』

그는 플랫폼의 빈 벤치를 향해 턱을 치켜 올려본 다음 그쪽으로 걸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따랐다.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벤치 위에그는 먼저 털썩 주저앉았다.

『그 친군 요즘 어떻게 지내나?』

『글쎄요. 실은 혹시 감독선생님이랑 여기 계시지않은가 했어요.』

『그 친구가 왜?』하고U감독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어디로 또 없어졌어요?』

나는 그의 느닷없는 놀라움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도 좀 생소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보았다.

『또 없어지다뇨?』

한국일보 詩壇

初雪賦

李世芳

해질녘 시냇가에 살얼음 퍼질때
우리가슴에 삼라만상이 깃들무렵
하늘에서 오시는 하얀 꽃가루。
오, 보일듯 보이지않는 하얀 나그네여。
생각하면 아득하여라
아득할수록 더욱 보고싶어라。
보이네 무릎꿇고 정좌한 열손가락사이로
이역만리 우리나라、
보살보다 더 정결한 모습으로
소복이 오시는 나그네。
하얀 꽃가루 뿌리시는 나그네여
말해다오 우리가슴 복판에 맺힌 한을
말해다오 통일은 언제 오는가를。
아득할수록 그리움은 커라
그리워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그윽히 오시는 하얀 꽃가루。
보일듯 보이지않는 은백색 꽃가루。
아、한잔의 소주를 마시며
울고싶어라 내땅 내하늘에。

【美國캘리포니아州코스타·메사거주】

벡커 프렌차이스 협회 정기총회 공고

현회장단이 단결과 승리를 표어로 걸고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함께 출범한지도 2년의 세월이 흘렀읍니다.

생각하면 여러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고 힘겨 웠던때도 많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회원 제위께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앞두고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현회장단은 협회정관을 엄중히 준수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기가 될지도 모르는 앞으로 2년동안의 새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하여 정기총회 일자를 확정하고 모든 준비를 서두르고 있읍니다.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하면 따라 간다는 식의 비 적극적인 생각이나),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 남아 있다면 계약갱신이나 프렌차이스 휘는 본사의 임의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본사는 우리들의 그 약점을 노리며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다시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철석같은 단결을 보여주십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권익과 생존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장 소 : 900 YORK MILLS RD. (프린스호텔)

때 : 1981년 11월 13일 금요일 오후1시

회 비 : $15 (1인당 식사비)

벡커 프렌차이스 협회장 김 병 진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